

# 韓醫學術雜誌를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韓醫學의 學術的 傾向<sup>1)</sup>

鄭智薰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사

*Research into academic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in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

*Jung Ji-Hun*

*There were six academic journals on oriental medicine, published in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1910-1945). Six academic journals are 『Han bang eui yak kyei 漢方醫藥界』, 『Dong eui bo gam 東醫報鑑』, 『Dong seo eui hak bo 東西醫學報』, 『Cho sun eui hak kyei 朝鮮醫學界』, 『Dong seo eui hak yeon ku hoi wol bo 東西醫學研究會月報』, 『Dong yang eui yak 東洋醫藥』. These journals published 33rd volume with sequence.*

*Research into these journals has derived the conclusion that the academic trend at the time were, firstly, the interaction between western and eastern medicine, secondly, researches on 『Nai Kyung 內經』, 『Sang Han Ron 傷寒論』, 『Dong eui bo gam 東醫實鑑』 and finally, promotion of development of oriental medicine by looking at the advantages of western medicine.*

---

1) 2004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 I. 序 論

韓醫學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건강을 돌보아 온 民族醫學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여 왔다. 하지만 日帝가 朝鮮에 침범하여 서양식 의학을 이식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의 韓醫學은 고려시대까지 自主性을 기치로 내세워 일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朝鮮이 개국하면서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등의 편찬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조선 중기에 간행된 『東醫寶鑑』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민족의학계의 결실인 것이었다. 『東醫寶鑑』 이후 한국의 韓醫學은 中國醫學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 『廣濟秘笈』, 『濟衆新編』, 『方藥合編』 등이 한국의 풍토에 맞는 의학을 만들고자 한 이전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日帝가 한국에 들어와 서양의학을 도입함에 따라 韓醫學은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말았다.

일제의 탄압은 의료제도상 韓醫學의 소외, 서양의학 위주의 의료정책, 韓醫學 교육기관 설립의 불허, 의생규칙의 반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의계는 이러한 탄압에 맞서 여러 각도로 학문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의계는 학술잡지의 간행, 한의사단체의 결성, 韓醫學 교육기관의 설립 등의 방법으로 맞섰지만, 그 때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 같은 외적 대응을 경주해 나가는 과정에 韓醫學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변질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제시대 한의계가 외부적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이 학술연구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났는가를 동 시기에 간행된 韓醫學術雜誌<sup>2)</sup>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日帝時代 韓醫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종형은 개화기부터 광복 후까지의 韓醫學의 모습들을 제도와 운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sup>3)</sup> 김적은 한국 최근세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한국 의학의 학술적 특징을 고찰하였으며,<sup>4)</sup> 신동원은 한국보건의료의 근대화 과정과 한국의 정치, 경제체제 등의 왜곡에 따른 보건의료의 식민지화 과정, 일제 하의 보건의료정책과 한국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고,<sup>5)</sup> 또, 신중완은 1875년에서 1945년까지의 시대적 배경과 사조의 변화, 최근세 한일양국의 동양의학의 흥망, 일제침략 이후 한방의료제도의 변화, 일제에 의한 한방의료제도의 폐지 및 한의계의 재기운동 등을 고찰하였다.<sup>6)</sup> 이상의 논문들은 시대적 배경과 제도적인 측면을 주로 연구한 것으로 당

2) '韓醫學術雜誌'의 본 논문에서의 의미는 日帝時代에 한의사단체에서 간행한 한의학관련 학술내용을 담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3) 이종형. 「韓國東醫學史」, 한국현대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77.

4) 김적. 「韓國最近世 東洋醫學의 學術의 특징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5)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6) 신중완. 「日帝侵略에 의한 韓方醫療制度廢絶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시 韓醫學의 학술적인 모습은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저자는 본 논문에서 日帝時代 韓醫學術雜誌의 발간 연혁, 韓醫學術雜誌의 발간 목적, 韓醫學術雜誌의 내용 등을 앞부분에서 밝혔고, 그 다음에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1945년 등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 韓醫學의 특징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일제시대 전반적인 韓醫學術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 II. 日帝時代に 간행된 韓醫學術雜誌

日帝時代 한의계에서는 韓醫學 학술진흥을 목적으로 韓醫學術雜誌의 간행을 추진하였다. 이 잡지들의 간행 목적에 대해서는 본 장 2. 韓醫學術雜誌의 발간목적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아래의 학술잡지들은 한일합방 이후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들의 발간 연혁, 발간 목적, 잡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韓醫學術雜誌의 발간연혁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발간된 韓醫學術雜誌를 서울에서 나온 것을 중심으로 헤아려보면 모두 6종 33권이다.<sup>7)</sup> 이들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잡지명	창간호발행일	종간호발행일	발행처	발행권수
『漢方醫藥界』	1913년 10월	1914년 1월 15일	朝鮮醫生會	2권
『東醫報鑑』	1916년 1월 1일	1916년 3월 1일	全鮮醫生會	2권
『東西醫學報』	1916년 6월 26일	1917년 6월 30일	公認醫學講習所	8권
『朝鮮醫學界』	1918년 3월 15일	1919년 9월 15일	朝鮮醫學界社	11권
『東西醫學研究會月報』	1923년 12월 31일	1925년 10월 18일	東西醫學研究會	7권
『東洋醫藥』	1935년 1월 1일	1935년 5월 1일	東西醫學研究會	3권

일제시대에 간행된 韓醫學術雜誌의 효시는 『漢方醫藥界』이다. 이 잡지는 1913년 10월에 朝鮮醫生會<sup>8)</sup>에서 洪鍾哲<sup>9)</sup>을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되었다. 이 잡지가 모토로 삼고자 하였던 것은 韓醫學의

7)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韓醫學術雜誌는 당시 서울에서 발간된 것으로만 국한하였다. 지방에서 발간된 『忠南醫藥誌』와 같은 잡지도 있으나 자료의 수집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본 논문의 연구자료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8) 1913년에 醫生會가 만들어진 후 여기에 등록된 韓醫들이 만든 조직으로 洪鍾哲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9) 1910년에 韓醫學의 쇠퇴를 안타깝게 여긴 명망 있는 韓醫學者 8명이 韓醫學의 진흥을 위하여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이 八家一志同盟이다. 그 구성원은 林赫東, 洪鍾哲, 韓秉璉, 林炳厚, 金寬植, 趙炳瑾, 田光玉, 金永勳 등이었다. 이들 중 洪鍾哲과 조병근이 韓醫學術雜誌 발행의 실무를 주도하였고, 洪鍾哲(1852-1919)은 잡지의 발행인이면서 또한 의학강습소의 소장이로서

계몽이었는데, 이는 이 잡지에 실려 있는 徐丙琳, 張容駿, 李峻奎, 裴碩鍾, 洪鍾哲, 黃翰周, 崔奎憲, 李鶴浩, 姜元熙 등 朝鮮醫生會 간부들의 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잡지는 1914년 1월에 제 2호를 내고 폐간되고 말았다.

『漢方醫藥界』의 폐간은 韓醫學을 부흥시켜 민족의학으로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의도한 수 많은 한의계 인사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에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韓醫學術雜誌의 재간행을 논의하게 되었다. 1915년 서울에서 전국의 東醫<sup>10)</sup>들이 한자리에 모여 全國醫生大會의 개최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이 자리를 기회로 삼아 韓醫學術雜誌의 재간행도 추진기로 계획하게 되었다. 이듬해에 나온 『東醫報鑑』은 바로 이 대회의 결실인 것이었다. 이 잡지는 1916년 1월 1일에 동대회에서 결성된 全鮮醫學會가 창간한 학술기관지로서 같은 해 3월 1일에 제 2호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선의회의 해체되면서 동시에 폐간되고 말았다.

韓醫學을 부흥시켜 민족의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보자는 열망이 전선의회의 해체와 『東醫報鑑』의 폐간으로 꺾이자 한의계의 인사들은 새로운 學術雜誌를 간행하여 분위기를 쇄신하자고 뜻을 모으게 되었다. 이에 뜻이 모아지자 洪鍾哲, 趙炳瑾<sup>11)</sup> 등은 전선의회의 청산자금을 인수하여 『東西醫學報』라는 잡지를 간행하게 되었다. 이 잡지는 『東醫報鑑』이 이름을 바꾸고 속간된 것으로 1916년 6월부터 간행되어 1917년 6월 제 8호까지 나오게 되었다. 『東西醫學報』는 이전의 韓醫學 계몽 성격의 『漢方醫藥界』, 『東醫報鑑』과는 달리 강의록 형식의 學術雜誌로 출발하였다. 주로 公認醫學講習所<sup>12)</sup>에서 강의된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은 東醫學과 西醫學을 망라하고 있다. 잡지의 이름에 ‘東西醫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東西醫學을 두루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 당시 한의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東西醫學報』는 매월 발행을 원칙으로 洪鍾哲을 저자 겸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하였으나, 제 6호부터는 의학강습소 소장인 洪鍾哲은 강습소의 일에만 전념하고, 대신에 趙炳瑾이 편집인을 金光淳이 발행인을 맡아 계속 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쇄물의 발행이 警務總監府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였던 시대적 이유로 인하여 제 때에 발행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sup>13)</sup> 이 잡지도 자금난에 의해 제 8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그 후에 趙炳瑾이 일본인 靑柳綱太郎<sup>14)</sup>의 명의로 1918년 3월에 『東西醫學報』의 이름을 『朝鮮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종형, 『晴崗醫鑑』, 성보사, 서울, 1984. p.487을 참조함)

10) ‘東醫’란 한국의학의 독자적 전통을 나타내주는 용어로, 현대의 ‘韓醫師’를 말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韓醫’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11) 1868년에 태어난 그는 八家一志同盟의 회원으로 잡지발행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洪鍾哲이 잡지발행의 일을 떠난 후에는 『朝鮮醫學界』의 부사장으로 활동을 하였다. 전선의회의 감사부장을 역임하였다.  
 12) 1905년에 설립된 同濟醫學校가 3년 만에 폐교된 후 1908년에 洪鍾哲, 趙炳瑾 등이 東醫學 강습소를 개설하여 강좌를 시작하고, 1912년에 경성부의 허가를 얻어서 ‘公認醫學講習所’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도 1919년에 폐소 되고 말았다. (이종형, 위의 논문)  
 13) 『東西醫學報』는 매월 발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발행 간격이 두 달이 될 때도 있었고, 발행일자 또한 불규칙하게 발행이 되었다.  
 14) 일본인 의사로 東醫學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朝鮮醫學界』의 사장으로 지내면서 동 잡지에 ‘健康長壽養生論’이

醫學界』로 고쳐 다시 속간하였다. 『朝鮮醫學界』 제 1호가 『東西醫學報』의 제 9호와 같은 셈인 것이다. 『朝鮮醫學界』 제 1호 목차에 ‘『東西醫學報』 제 9호 改’라는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朝鮮醫學界』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東西醫學報』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朝鮮醫學界』의 내용들 대부분이 『東西醫學報』로부터 이어져 온 연재물들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朝鮮醫學界』도 1919년 2월까지 제 10호를 낸 후, 같은 해 9월에 나온 제 11호를 끝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이 후에 1921년에 醫生들의 학술연구 장려와 지식의 계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東西醫學研究會에서 발행한 『東西醫學研究會月報』가 간행되었다. 이 잡지는 1923년 12월 31일에 제 1호가 발간된 후 1925년 10월 18일에 革新 제 1호가 발간되기까지 총 7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1924년 9월 30일에 제 6호를 낸 후, 1925년 10월 18일에 ‘革新 제 1호’로 바꾸어 재창간하는 의욕을 보였으나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1930년대가 되면서 東西醫學研究會에서는 『東洋醫藥』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게 된다. 이 잡지는 1935년 1월 1일에 제 1호가 발간된 후 같은 해 5월 1일에 제 3호가 발행되기까지 총 3권이 발간되었다. 『東洋醫藥』은 趙憲泳을 ‘編輯兼發行人’으로 하여 발간되었는데, 金永勳, 張基茂, 李乙雨, 李乙浩 등이 저술한 韓醫學 관련 논설 및 이론 등을 싣고 있다. 창간 당시에는 월간지의 형식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시대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격월간으로 나오다가 제 3호가 나온 후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日帝時代의 韓醫學術雜誌는 『漢方醫學界』로부터 『東醫報鑑』,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를 거쳐 『東西醫學研究會月報』, 『東洋醫藥』로 이름을 바뀌어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다. 이 기간동안 발간된 잡지의 총수는 모두 33권이다.<sup>15)</sup>

## 2. 韓醫學術雜誌의 발간목적

일제시대에 간행된 韓醫學術雜誌인 『漢方醫藥界』, 『東醫報鑑』,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研究會月報』, 『東洋醫藥』 등에서 밝히고 있는 이들 學術雜誌의 발간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韓醫學의 폐절을 막고 韓醫學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韓醫學術을 더

라는 글을 연재하였다.

15) 이종형은 위의 논문에서 이들 잡지가 모두 32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東西醫學報』의 제 4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본 논문의 텍스트로 삼은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歷史資料館 보관본에도 제 4호는 빠져 있으나, 이들 잡지의 저본이 된 서적과 잡지의 목차 나열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제 4호는 원래부터 빠진 결본이 아니라 보관상의 이유로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前者의 목적은 『漢方醫藥界』, 『東醫報鑑』, 『東洋醫藥』 등의 잡지에, 後者의 목적은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研究會月報』 등의 잡지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의 韓醫學의 폐절을 막고 韓醫學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은 『漢方醫藥界』에 보이는 ‘漢方醫學의 改良’이라는 글에 잘 나타난다. 이 글은 동 잡지의 첫머리에 실린 崔在學의 글로서, 이 글에서는 ‘漢方醫學의 改良’을 진찰기구, 약제의 응용, 병원설비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朝鮮醫生會副會長인 徐丙琳은 ‘醫門參古懲今’이라는 글에서 『天元玉冊』, 『本草經』, 『內經』 등의 서적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韓醫學의 유래가 오래되었음과 韓醫學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韓醫學徒들의 학문연구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朝鮮醫生會의 간부들의 여러 글들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하여 『漢方醫藥界』의 발간 목적이 ‘한방의학의 개량’과 ‘韓醫學의 연구정진’을 통한 韓醫學의 연속성 유지임을 잘 알 수 있다.

韓醫學의 연속성 유지라는 목적은 『東醫報鑑』에도 잘 나타난다. 『東醫報鑑』은 全鮮醫會의 학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발간된 잡지이다. 이러한 목적은 이 잡지에 실려 있는 전선의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저명한 한의들의 논설과 강연 등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특히, 金允植<sup>16)</sup>은 본 잡지의 發刊辭에서 편견을 고수하는 아집을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학본연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힘쓰자고 역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韓醫學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이 엮보이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를 통하여 『東醫報鑑』의 발간목적이 학술기관으로서 한의들을 계몽시켜 韓醫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東洋醫藥』에서도 또한 한의학을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東洋醫藥』의 발간 목적은 第一號에 실린 創刊辭에 잘 나타나 있다. 創刊辭에는 “東洋醫學을 재인식하고 西洋醫學을 재검토하여 漢醫學을 무조건 멸시하던 과오를 고치고 서양의학의 무조건 숭배하던 迷妄을 깨뜨려서 엄정한 비판 하에 양자의 短處를 버리고 長處를 취하여 의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고 하여 잡지 발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東洋醫藥』은 東洋醫學의 現代化, 東洋醫學의 民衆化, 東洋醫學의 學術的發展 등의 3대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創刊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東洋醫藥』은 당시에 서양의학에 대한 무조건적 신봉을 비판하는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시점에서 朝鮮에서의 韓醫學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겨 韓醫學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언급한 韓醫學術을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는 인식은 위와 같은 韓醫學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자는 노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보완적 노력이었다.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研究會月報』 등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글들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東西醫學

16) 1835년에서 1922년까지 살았다. 중추원의장과 대체학을 역임하였다.

報』는 당시 서울에 있던 公認醫學講習所에서 강의한 내용을 실은 강의록 형식의 잡지이다. 이는 강습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한의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취지가 『東西醫學報』 제 1호에 실려 있는 ‘序’와 ‘범례’에 잘 나타나 있다. ‘序’에서 洪鍾哲은 한의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 잡지를 통하여 의학강습소의 교육내용을 익혀 韓醫學을 더 발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韓醫學을 구하는 길은 꾸준히 학문연마를 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7)</sup> ‘凡例’에서는 東醫學과 西醫學 각 과목의 수록 배경과 의의, 기타 醫理 등을 수록한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있다.<sup>18)</sup> 이를 통하여 『東西醫學報』의 발간목적이 韓醫學術發展을 도모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朝鮮醫學界』의 간행목적은 『東西醫學報』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朝鮮醫學界』는 西醫學과 東醫學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방법으로 의학을 발전시키자는 목적 하에 『東西醫學報』에서부터 연재한 東醫學과 西醫學의 匯通과 관련한 글들을 연속적으로 싣고 있다. 이는 『朝鮮醫學界』의 목적이 『東西醫學報』의 연장선상에서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한 것임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東西醫學研究會月報』의 발간 목적은 창간호에 실린 金性璣, 韓鳳熙, 李乙雨, 雪初居士, 宋振玉 등 여러 한의사들의 축사에 잘 나타나 있다. 대체로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시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韓醫學을 부흥,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창간호에 보이는 각 인물의 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7) 序

醫可不學而醫乎아 學可不習而醫乎아 必曰學而又習之니라 醫可泥古而醫乎아 亦可狃今而醫乎아 必曰古而又今之라야 可以爲醫 나라. …… 東醫之受免許者 六千餘號에 至호니 此不爲不多로되 今此六千餘人이 住所未必一定이오 生活은 以醫爲副業호고 年少者는 從他奔走호야 廢業이 相續호며 老大者는 月計減損호야 附則免許者不能補其零數호니 此는 視感의 退步오. …… 朝鮮에 在호 醫師는 朝鮮, 內地, 外國人을 并호야 不過爲六百餘人인즉 此不能配布於半島人民은 所謂博施濟衆이 堯舜도 其猶病 諸也로다 醫業이 此運을 際호야 不容不汲汲然學而又習之호고 故而又新之호야 有專門之技能然後에 斯道可以不朽而人類有幸福矣라 於是에 合衆人之智호며 副衆人之望호야 以東西古今의 學理로 教授於公認醫學講習所學生而選取講義호야 編成月報호야 供覽於同志同業者호노니 任重而途遠이로다 有補於斯道는 吾不敢期오 讀者諸君에 在호다 호노라.

著者(洪鍾哲) 識

18) <凡例>

- 一. 是書는 人的 疾病을 治療호야 壽域에 躋하는 醫學을 編輯함이라.
- 一. 是書는 東醫科와 西醫科를 一冊에 鳩集호야 對古證今호야 補短取長코자 함이라.
- 一. 是書는 參考科를 置호야 博物學, 物理學, 化學을 加入함은 日用的 常識이 될뿐만아니라 醫學者 先知지 안이치 못함이라.
- 一. 參考科에 東西古今醫 醫史及醫學에 對호 疑問을 編入호며 特히 朝鮮醫史는 廣搜謄載코자호는디 文獻이 無微호야 遺憾이 됨이라.
- 一. 是書에 醫律, 雜俎 其他醫理에 必要함을 隨時記入호야 同業界에 法令及時宜를 警醒함이라.
- 一. 是書는 公認醫學講習所에 三箇學年教授호는 學說로 其講義를 取호야 月報를 刊行함이라.
- 一. 是書는 公認醫學講習所에 一二三學年教授호는 科程이 有호마 此에 依호야 次第로 編成코자함이라. (但, 各學年科程表는 別紙에 參考함.)
- 一. 是書第一號는 各學科의 定義와 端緒를 一一 編入함은 是書의 將來材料를 先示함이오 次號에 始호야 單히 講習所의 學年學科를 隨호야 編輯코자함이라.

金性璡는 「創刊辭」라는 글에서 “東西醫學研究會가 半島江山에 설립됨은 회원여러분의 精誠의 결정체이다. 큰 光明이 天下에 비추었으니 다같이 旗幟를 내걸고 責務에 힘쓰자.”고 역설하고 있다.

韓鳳熙는 「告辭」에서 “東術：溫涼·補瀉, 西術：解剖·注射를 널리 베풀고 이를 깊이 연구하여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회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李乙雨는 「醫界에對한一言」이라는 글에서 “醫學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기에, 東西研究의 필요와 大同團結의 기회를 自覺하여, 政治, 法律, 經濟, 商工 등의 다른 목적은 모두 배제시키고 단순한 起死回生の 신비한 醫術을 한마음으로 발휘하는 데만 목적을 두자.”고 역설하고 있다.

雪初居士라는 필명을 쓰는 이는 「本報創刊에對하야」라는 글을 통하여 “東西醫學研究會를 설립하여 溫故知新的의 목적을 확립하는 동시에 向上前進의 步武를 내딛어 舍短取長하여 人類에게 無窮한 행복을 享有하게 하는 것이 우리 醫界의 절대적인 책임이다. 이에 月報를 創刊하여 講義와 理論을 소개하여 지식의 교환을 꾀하고자 하니 永久的인 대단결이 本報의 절대적인 사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宋振玉은 「醫界將來를祝함」이라는 글에서 “東西醫學을 對照하고 折衷하여 八方에 이를 간행하여 알리니, 옛 것에 빠진 자가 지금의 것을 배척하고 지금의 것에 취한 자가 옛 것을 멸시하는 惡習과 弊習이 눈 녹듯이 없어지고 융화할 것이므로, 朝鮮의 醫界에 瑞光이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축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東西醫學研究會月報』는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시켜 溫故知新하는 자세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침체된 韓醫學을 부흥, 발전시키려는 목적 하에 발간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韓醫學의 폐절을 막고 韓醫學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과 韓醫學術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두 가지 목적 하에 韓醫學術雜誌는 발간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구체적인 노력은 學術雜誌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3. 韓醫學術雜誌의 내용

日帝時代に 간행된 韓醫學術雜誌에는 다양한 내용의 글들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韓醫學, 西洋醫學, 自然科學 등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으며, 개인의 醫案에서부터 논설, 강좌 형식의 글까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내용의 전문을 신지는 못하고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1) 『漢方醫藥界』 19)



『漢方醫藥界』에는 첫머리에 의학의 시조인 黃帝와 神農을 찬양하는 시를 삽화와 함께 소개하고, 당시의 저명한 한의사들을 사진과 함께 약력을 소개한 글을 실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다양한 韓醫學 관련 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다. 이를 아래에 요약한다.

· 醫門參古徵今<sup>20)</sup>

이 글은 徐丙琳<sup>21)</sup>이 쓴 것으로 그는 여기서 “韓醫學의 유래는 오래 되었다. 『天元玉冊』, 『本草經』, 『內經』 등은 역사의 오래됨을 잘 나타내주는 것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학문을 연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運氣綱領<sup>22)</sup>

이 글은 張容駿<sup>23)</sup>이 쓴 것인데, “의사가 運氣를 모르면 담을 보고 서있는 것과 같다.”고 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陰陽, 五運, 六氣 등의 정의와 主運과 客運 각각의 내용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補養天真, 節食遠色”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기가 중요하지만 이보다 개인적 양생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경계로 삼고자 함일 것이다.

· 傷寒論<sup>24)</sup>

이 글에서 李峻奎<sup>25)</sup>는 상한의 正傷寒과 類傷寒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傷寒, 傷風, 溫病, 熱病, 瘧瘧 등을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六經大法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合病, 并病, 直中, 陰極似陽 등의 제반 증상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夫有一病이면 卽有一症’이라는 말인데, 이는 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서 상한과 유사한 제반의 증상들을 단지, 발열 하나만 보고 상한이라고 여겨 發表之劑를 투여하는 庸醫들의 그릇 됨을 지적하고 있다.

19) 『漢方醫藥界』 제 1호는 필자가 읽어보지 못하여 본 논문에서 소개하지 않는다.

20) 『漢方醫藥界』 제 2호

21) 1862년에 태어났다. 朝鮮醫生會副會長을 역임하였다.

22) 『漢方醫藥界』 제 2호

23) 1866년에 태어났다. 1904년에 설립된 同濟醫學校의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朝鮮醫生會 評議長을 지냈다.

24) 『漢方醫藥界』 제 2호

25) 1852년에서 1918년까지 살았다. 1899년에 廣濟院長을 지냈고, 1909년에는 사립의학강습소장을 지냈으며, 1906년에 『醫方撮要』를 지었다.

· 傷寒汗下虛實辨論<sup>26)</sup>

이 글에서 裴碩鍾<sup>27)</sup>은 상한에 汗法과 下法을 쓸 때에는 陰陽, 虛實, 表裏 등을 잘 구별한 후에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약을 쓰는 것은 “實實虛虛 損不足而益有餘”하는 것으로, 의사가 이처럼 ‘反治’를 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 婦人論<sup>28)</sup>

洪鍾哲은 이 글에서 부인병에는 남자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으니 잘 구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성의 생리에 대하여 『內經·上古天真論』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월경의 기전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여성의 병이 치료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율화가 쌓여 그것을 잘 풀지 못하는 것, 질투 등으로 인한 근심, 병이 있어도 잘 알리지 못함, 무당을 믿고 의사를 믿지 않음, 약물을 두려워함 등을 여성의 병이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고 있다. 그리고, 부인병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하며, 특히 望診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귀부인들이 휘장 뒤에서 손목만을 내어놓고 진찰을 받을 때는 망진을 할 수 없기에 맥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의사로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부인병을 소개하고 있다.

· 鍼灸總論<sup>29)</sup>

이 글에서 黃翰周<sup>30)</sup>는 침구치료를 할 때에는 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데, 사기의 침범부위와 그 원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며, 침을 놓을 때에는 허한 것은 보하고 실한 것은 사하여 기혈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의 증상을 나열하고, 오장 각각에 속하는 병들을 소개하고 있다.

· 小兒生長調護論<sup>31)</sup>

崔奎憲<sup>32)</sup>은 이 글에서 소아가 태어난 후의 拭口法 부터 날짜별로 소아의 성장변화 및 조리법을 소개하여 소아의 성장과 조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식구법을 행할 때에 세속에서 大黃을 쓰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32일 간격으로 나타나는 變과 64일 간격으로 나타나는 蒸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 變蒸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아는 태어나서부터 잡증이 가장 많으니

26) 『漢方醫藥界』 제 2호

27) 1874년에 태어났다. 朝鮮醫生會 幹事를 역임하였다.

28) 『漢方醫藥界』 제 2호

29) 『漢方醫藥界』 제 2호

30) 朝鮮醫生會 總務를 역임하였다.

31) 『漢方醫藥界』 제 2호

32) 1846년에 태어났다. 『漢方醫藥界』의 編述員을 역임하였으며 『小兒醫方』을 지었다.

모름지기 변증을 잘하여 4~5세까지 조호를 잘해야 하는 것이 제일의 요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內傷論<sup>33)</sup>

이 글에서 李鶴浩<sup>34)</sup>는 사람이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의 근본은 먹는 것이며, 飲으로 陽氣를 기르고 食으로 陰氣를 길러 脾胃를 조화롭게 하여 기의 運行을 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嗜慾無節, 飲食失宜 등으로 내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내상증도 방금 생긴 것과 오래되어 쌓인 증이 있으며, 不足症과 有餘症의 구분이 있으니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人有四象說<sup>35)</sup>

姜元熙<sup>36)</sup>는 이 글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四象이라는 것이 있는데, 太陽, 太陰, 少陽, 少陰의 구분을 하여 약을 투여하는 것은 李濟馬 선생이 옛 성인들이 밝히지 않은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四象醫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生理衛生의 略說<sup>37)</sup>

이 글은 洪鍾哲이 쓴 것인데, ‘前號續’이라고 제목 밑에 써 놓은 것으로 보아 『漢方醫藥界』 제 1호 부터 연재한 것으로, 해부학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골의 속, 관절, 골의 생리, 골의 성분, 골의 작용, 골육, 근육의 종류, 골격과 근육의 발달 등의 소제목 하에 뼈의 해부 및 생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陽平君小傳· 鄭北窓先生傳· 芝田先生小傳<sup>38)</sup>

이 글들은 金聲根<sup>39)</sup>이 쓴 글로 각각 許浚, 鄭謙, 李臣奎에 대하여 서술한 간략한 전기형식의 글이다. 이들의 생애, 일화 및 학문세계 등을 소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 朝鮮醫藥古事<sup>40)</sup>

이 글은 지은이를 밝혀놓지 않은 글로 ‘內醫院’, ‘隨駕’, ‘產室廳’, ‘入診’ 등 조선시대 궁중의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다. 내의원의 조직과, 수가할 때의 인원 구성, 산실청의 기능, 입진시의 인원 및

33) 『漢方醫藥界』 제 2호

34) 1850년에 태어났다. 朝鮮醫生會幹事長을 역임하였다.

35) 『漢方醫藥界』 제 2호

36) 1858년에 태어났다. 四象說의 보급에 힘썼으며, 私立醫學講習所講師를 역임하였다.

37) 『漢方醫藥界』 제 2호

38) 『漢方醫藥界』 제 2호

39) 1835년에서 1918년까지 살았다. 太醫院卿과 藥院提調를 역임하였다.

40) 『漢方醫藥界』 제 2호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 『東醫報鑑』

『東醫報鑑』의 내용은 1권은 全鮮醫會 당시에 모였던 여러 인사들의 축사, 논설, 강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권은 통신 강의를 위해 쓰여진 강좌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 내용은 크게 ‘論說’, ‘講演’, ‘東醫學講述’, ‘新醫學講義錄’, ‘其他’ 등의 제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1) 論說

‘論說’이란 한의들의 논문을 모은 것으로 전국의생대회장에서 발표된 글도 있고, 잡지사에 투고한 것을 실은 글도 있다.

· 對本會<sup>41)</sup>

이 글은 韓秉彜<sup>42)</sup>이 쓴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조선의학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연마하지 않고 닦지 않아서이지 본질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흠어진 경들을 수습하고 쇠퇴한 사상을 모으고 지식을 교환하여 생명을 넓게 구하면 전선의 서광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전선의학의 설립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東醫의 必要<sup>43)</sup>

이 글은 景道學<sup>44)</sup>이 쓴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사람의 질병에 마땅히 그 습관을 보고 약을 쓸 것이니 의사가 만일 남녀를 묻지 않고 노소를 묻지 않고 한가지로 무슨 병에 무슨 약이라고 하면 내가 역시 이르기를 이 의사는 용의라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며, 사람의 질병을 다스림에는 居處, 衣服, 飲食의 습관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東醫學이 필요한 여섯 가지의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병의 종류와 사람에 따라 각각 약이 다른 것, 각각의 개인에게 의학적 지식을 알려 줄 것, 전염병의 치료법이 동의에도 있음, 경제적인 필요, 이용의 편리, 의술의 보급이 용이함 등을 열거하여 東醫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41) 『東醫報鑑』 제 1호

42) 1858년에 태어난 그는 팔가일지동맹의 한 사람이다. 『東醫報鑑』의 논설위원, 전선의학의 감사부원, 東西醫學研究會의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醫方新鑑』 3권이 있다.

43) 『東醫報鑑』 제 1호~제 2호

44) 1846년에 태어났다. 전선의학의 평의부장을 역임하였다.

· 敬陳于同業界<sup>45)</sup>

이 글은 尹用培<sup>46)</sup>가 쓴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우리 동업계의 여러분들 단합하는 마음을 도모합시다. 하나의 쌀알은 뜰에 버려져 조수의 먹이가 되나 한말의 곡식은 사람이 거두며, 한가닥의 실은 아무렇게나 날려 먼지가 되나 한 척의 비단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니, 이것이 모두 단합의 효력입니다.”라고 설명하여, 의생대회의 목적이 단합에 있으며 단합의 성과가 동의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溫古知新<sup>47)</sup>

이 글은 李完珪<sup>48)</sup>가 쓴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동의의 쇠퇴이유를 ‘溫故而不知新’이라고 간주하여, “신기한 기술이 놀랄만한 것을 성인이 다시 와서도 새 것을 배우고자 할 것이니 동의의 일정한 도와 바뀌지 않는 이치로 온고하며 신학문의 천가지 만가지 기술을 신지하면 우리 반도에 세계적 의학이 나올 것이니 기뻐하노라.”라고 주장하며 溫故知新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미경, X-ray, 뇌의 작용, 해부학, 우두 등의 새로운 학문을 익혀 東醫學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 生理說<sup>49)</sup>

이 글은 洪鍾哲이 쓴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고금동서를 모은 의학계를 성립하고자 하는 전선의회가 나와서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방약을 고쳐서 여러 사람의 생리를 완전하게 함은 또한 그 의무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고금동서를 모은 의학계의 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漢方醫藥界』에서 洪鍾哲이 쓴 글과 유사한 내용으로 해부학의 내용도 담고 있는데, 수의근은 수족의 근육으로 後天의 생활을 담당하고, 불수의근은 심, 폐, 위 등의 근육으로 先天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독특한 논리를 펴고 있다.

· 講演會에 對하야<sup>50)</sup>

이 글은 李濟成<sup>51)</sup>이 쓴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우리 회원들이 한가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착작 전진하면 거의 문명계에 다가가 문명을 빛낼 것이다.”라고 하여 의학의 발전이 곧 우리 동포들의 행

45) 『東醫報鑑』 제 1호~제 2호

46) 1851년에 태어났다. 全鮮醫會의 발기인, 평의부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47) 『東醫報鑑』 제 1호

48) 1874년에 태어났다. 朝鮮醫生會의 발기인, 감사부원 등을 지냈고 東西醫學연구회를 이끌었다.

49) 『東醫報鑑』 제 1호

50) 『東醫報鑑』 제 1호

51) 1871년에 태어났다.

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共進會參觀感想<sup>52)</sup>

이 글은 崔東燮<sup>53)</sup>이 쓴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공진회를 둘러본 소감을 기술하고, “우리들의 관람한 감상으로 동업계의 관람하지 못한 회원에게 공진회장의 비기와 자혜보급의 구가를 일술한다.”고 하여 회원들과 공진회의 지식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의학과 관련이 있는 자혜구제전시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시된 진료사업성적의 진보발달, 위험 및 질병에 관한 도표와 모형, 신구약품의 비교와 신구의료기구의 비교, 인체의 표본 및 모형, 조선 종래의 치료기구 및 인체도, 엑스광선 사진, 질병치료의 상태와 치료중의 경과와 치료 후의 성적에 관한 사진 및 도표, 맹생교육의 도구, 아생발음도해, 보청기 등의 전시물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舉形命論<sup>54)</sup> 告天下人士<sup>54)</sup>

이 글은 金永勳<sup>55)</sup>이 쓴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노자가 말한 ‘나에게 큰 병이 있음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만약 내몸이 없다면 어떤 병이 있으리오?’라는 말을 인용하여 사람의 있는 바는 오직 나이고 내가 의지하는 바는 오직 形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形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敬告我全鮮醫生<sup>56)</sup>

張起學<sup>57)</sup>은 이 글에서 “동의의 전해짐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위로는 軒岐와 扁鵲에 이르며 張劉朱李 등의 여러 명에 내려와 미침에 모두 진리를 탐구하며 대도를 천명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제하며 질병을 없앤 성인군자들이다. 그러나 동이가 쇠퇴함은 동이의 학술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東醫學術을 연구하는 사람이 미친하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하며 東醫學을 연구하는 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전선의회에서 韓醫學의 부흥을 위하여 ‘의학회조직’, ‘의학회보간행’, ‘약재수용의 개량’ 등의 삼대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萬事有時<sup>58)</sup>

이 글은 田光玉<sup>59)</sup>이 쓴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무릇 천하의 만사가 각각 그 때가 있으니 그러므

52) 『東醫報鑑』 제 1호

53) 1873년에 태어났다. 全鮮醫會副會長을 역임하였다.

54) 『東醫報鑑』 제 1호

55) 1882년에서 1974년까지 살았다. 팔가일지동맹의 한사람으로, 전선의회 감사부원, 東西醫學研究會 회장, 경기도 의생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壽世玄書』가 있다.

56) 『東醫報鑑』 제 1호

57) 1868년에 태어났다. 全鮮醫會 발기인, 감사부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58) 『東醫報鑑』 제 1호

로, 후회할 때가 있으며 드러날 때가 있으며 태평할 때가 있으며 그를 때가 있으며 상할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고요할 때가 있으며 움직일 때가 있으며 나아갈 때가 있으며 물러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으니, 오늘은 우리가 드러내고 크게 할 때이며, 치료하고 움직일 때이며 나아가고 말할 때이다.”라고 말하며 시기를 놓치지 말고 힘을 합하여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論說’이라는 제하에 붙어 있는 글들을 분석해 보면 韓醫學의 부흥의 시기가 도래함에 한 의계가 대동단결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역설하는 내용들이다.

## 2) 講演

‘講演’이란 전국의생대회의 행사장에서 이루어진 학술발표를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두루 포괄하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특이한 점은 서양의학중심의 전염병질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 · 傳染病에 就하야<sup>60)</sup>

일본인 의사인 森安連吉이 의생들을 상대로 강연한 것이다. 그는 “전염병이라 함은 어떠한 것인가? 말하기를 혹 일종의 병원 즉 세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번식을 하여 균체로써 종종 독소를 뱉으로써 이로 인하여 인체가 상해를 입어 전신 및 국소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며, 전염병의 정의 및 종류, 예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공중위생은 개인의 위생과 아울러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전염병을 발견할 시에는 신속히 신고할 것을 주의시키고 있다.

### · 挽近의 外科學<sup>61)</sup>

일본인 의사 室谷脩太郎이 의생들을 상대로 강연한 것이다. 그는 “외과학이라 칭하는 것은 학리로 기초를 만들며 손의 동식은 기계운용에 의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옛날에는 그 기초라고 할 학리의 진보가 오히려 유치한 시대로서 그 범위가 극히 좁음을 좇아서 모두 기계의 범술에 의하여 치료하는 곳의 질병을 외과적 질환이라 칭하여 내과적 질환과 구별되었으니 근래에 외과학이 크게 진보 발전하

59) 1871년에서 1846년까지 살았다. 팔가일지동맹의 한 사람으로 同濟醫學校 교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靈素鍼灸經』이 있다.

60) 『東醫報鑑』 제 1호~제 2호

61) 『東醫報鑑』 제 1호~제 2호

여 완전히 구시대의 면목을 일신하여 양자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이를 뿐 아니라 종래에 소위 내과적 질환이라고 칭하는 것도 외과의 힘을 얻어서 그 병세를 가라앉히며 그 병의 뿌리를 제거하는 능력이 많다.”라고 하며, 최근의 외과학의 발전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예도 들고 있는데, 뇌수술, 흉곽절개수술, 동물장기의 이식 시도 등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있다.

· 消毒及防疫의 注意<sup>62)</sup>

일본인 의료기사인 原親雄이 의생들을 상대로 강연한 내용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박멸하기 위한 소독 및 방역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완전한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의 발견이므로 이러한 발견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또한 소독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으므로 오해를 풀어주는 데 의생들이 앞장서서 이해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漢藥應用에 對하<sup>63)</sup>

일본인 의료기사인 兒島高里의 강연으로, 毒性 및 劇性 등을 지닌 한약의 취급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독성을 지닌 한약으로는 雄黃, 硃砂, 보두 등을 예로 들고 있으며, 극성을 지닌 한약으로는 附子, 大戟, 甘遂, 罌粟殼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朝鮮醫學의 由來와 發展<sup>64)</sup>

이 글에서 池錫永<sup>65)</sup>은 韓醫學의 역사에 대한 서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여 韓醫學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상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유입, 의료제도, 교육기관, 사건 등을 다소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新羅人 의사인 ‘金波鎮漢紀武’를 두 사람의 인명으로 인식하는 등 한자 해석의 오류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가 韓醫學에는 해박하지 못한 서의사로서의 한계가 드러나 보인다.

· 習慣改良의 要点<sup>66)</sup>

이 글은 池義燦<sup>67)</sup>이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습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그 것을 고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글이다. 그는 특히, 자극적인 음식은 위를 상하며, 자극적인 음식은

62) 『東醫報鑑』 제 1호

63) 『東醫報鑑』 제 1호

64) 『東醫報鑑』 제 1호~제 2호

65) 1855년에서 1935년까지 살았다. 『牛痘新設』을 지어 종두법을 보급하였다. 전선의회 때에는 대회장을 맡아 활약하였으나, 西醫學을 연구하였다.

66) 『東醫報鑑』 제 1호

67) 1871년에 태어났다. 전선의회의 발기인, 평의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생식의 기능에 손해를 입히며, 고추가 음식의 균을 없애면 역시 사람몸에 들어와서는 정기를 없앨 수도 있다는 등의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질병은 깨닫지 못하고, 방약만 익혀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 診法의 最要<sup>68)</sup>

이 글은 崔東燮이 쓴 것으로 고대에도 기질의 구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氣勇人, 血勇人, 神勇人, 骨勇人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들 기질을 각각 사상의학의 太陽人,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에 대응시키고 있는데, 이를 또 서양의학자 크레츠머의 사체질인의 성격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상의학에 대한 당시인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글이다.

· 醫藥과生命의 關係<sup>69)</sup>

趙炳瑾은 이 글에서 “옛 성인이 약을 만드신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으로 의학을 하는 이가 다분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학을 하는 이들이 생명을 중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朝鮮醫學의 將來<sup>70)</sup>

金壽哲<sup>71)</sup>은 이 글에서 “지금 이렇게 전선의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니, 조선의학의 장래는 매우 밝다.”라고 말하며 의학의 장래를 밝혀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

· 東西醫史<sup>72)</sup>

이 글은 全東弼이 강연한 것으로, 처음에 ‘太古의 各國迷信의醫史’라는 제목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의 의료행위부터 차례대로 동서양의 의학의 역사를 각각 기술하고 있는 글이다. 이를 통하여 의학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3) 東醫學講述

‘東醫學講述’이라는 제하에 여러 가지 글들이 실려 있다. 이것은 『東醫報鑑』 제 2호에 연재된 것

68) 『東醫報鑑』 제 1호

69) 『東醫報鑑』 제 1호

70) 『東醫報鑑』 제 1호

71) 전선의회의 총무, 평양의학회의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醫藥月報』를 창간하였다.

72) 『東醫報鑑』 제 2호

으로, 同題下에는 '問答解'라는 소제목을 달아 독자의 질문에 편집부가 대답하는 형식의 글도 있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韓醫學의 기초이론이 대부분이다. '人身小天地', '虛心合道', '陰陽論', '四象論', '五行論', '人之壽夭說', '以道療病', '學診之士必先歲氣', '氣味溫補以存精形' 등이 그 제목들로,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黃帝內經』, 『東醫寶鑑』 등 의서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 잡지가 학술적인 측면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잡지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나중에 여기에 실린 통신강좌의 성격의 글들은 나중에 발간되는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에 계속 이어진다.

#### 4) 新醫學講義錄

또 다른 곳에 '新醫學講義錄'이라는 제하의 통신강좌적 성격의 글들이 실려 있다. 이것은 『東醫報鑑』 제 2호에 나오는 '解剖生理學', '病理總論', '診斷學', '藥物學', '外科總論', '傳染病學' 등의 제목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본문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제목들은 과목명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준다. 이 글들 속에는 서양의학적 지식을 축약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잡지를 읽는 한의들에게 서양의학 지식을 습득케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뒤에 나오는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에 같은 제목으로 이러한 통신 강의는 계속 이어진다.

#### 5) 其他

이외에도 '其他'라는 제하의 글이 하나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우리約條73)

이 글은 당시 의생들에게 위생에 관하여 위생상태를 청결히 할 것을 요구하는 글이다. '自體清潔', '衣服清潔', '診察所, 賣藥所의 위치' 등에 대하여 꼭 이행해야 할 행동강령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는 당시 한의사들의 진료소가 서양식 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것을 고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개선을 통하여 서양식 병원들과 대등해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3)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73) 『東醫報鑑』 제 1호~제 2호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는 발행인이 다른 잡지이지만,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제목만 바뀌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잡지들이다. 그러므로, 발행목적이나 내용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같은 잡지라고 간주할 수 있다.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에 나오는 글들을 분류한다면 東醫學, 參考科, 西醫學, 其他 關聯 內容 등으로 갈래지을 수 있다.

### 1) 東醫學

‘東醫學’이라는 제목 하에 韓醫學전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韓醫學의 내용을 서양의학적 학과목처럼 ‘病理學’, ‘診斷學’, ‘藥物學’, ‘外科學’ 등으로 제목을 붙여 서술하고 있는 점은 독특하다.

#### · 病理學

‘病理學’이라는 제목 하에 『內經』의 여러 편을 인용하여 질병발생의 원인과 질병발생의 기전 및 합당한 치료원칙, 침자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먼저, 『黃帝內經素問』의 첫 편인 『素問·上古天真論篇 第一』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靈樞·百病始生 六十六』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靈樞·憂恚無言 第六十九』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素問·生氣通天論篇 第三』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病理學’이라는 제목 하에 네 편의 『內經』 원문을 인용하여 놓았는데, 이들 내용이 韓醫學의 기초적인 이론으로 韓醫學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첫머리에 놓고 있는 것이다. 별다른 설명 없이 주로 원문을 수록하여 놓았는데, 당시의 강습소 학생들과 學術雜誌를 구독한 韓醫들에게 韓醫學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강좌 형식의 연재물이다.

#### · 診斷學

‘診斷學’이라는 제목 하에 ‘平脈早晏法’, ‘分別三關境界脈候所主’, ‘辨尺寸陰陽榮衛度數’, ‘平脈視人 大小長短男女逆順法’, ‘持脈輕重法’,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 등의 소제목으로 기본적인 진단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의 대부분은 『素問·五藏生成篇 第十』에서 일부의 내용을,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에서 일부의 내용을, 그리고,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에서 일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持脈輕重法’은 『東醫寶鑑·雜病篇』의 「診脈·診有輕重」의 내용을 인용하여 맥에 경중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은 『東醫寶鑑·外形篇』의 「脈·人迎氣口脈」에서 구절을 인용하여 오장육부를 주하는 맥의 부위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서적을 인용하여 선택진단법, 맥형상, 평맥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법도 또한 『內經』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편들을 암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익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강좌 형식의 연재물이다.

· 藥物總論

‘藥物總論’이라는 제목 하에 『東醫寶鑑』의 일부를 인용하여 약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東醫寶鑑·湯液編』의 「湯液序例·用根梢法」의 내용과 같은 편의 「氣味升降」의 내용을 인용하여 약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四氣와 五味의 각각의 특징과 그 작용 등을 설명하고 있는 강좌 형식의 연재물이다.

· 脈經

‘脈經’이라는 제목 하에 모두 15개의 소제목으로 ‘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도 또한 『內經』의 여러 편을 근간으로 하여 부차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소제목과 인용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部九候’라는 제목 하에 『素問·三部九候論篇 第二十』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三部九候의 구체적인 부위와 소속장부, 삼부구후로 사생을 결단함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七診’은 『素問·三部九候論篇 第二十』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七診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七診을 참고하여 질병의 예후를 판단함을 강조하고 있다.

‘診有十度, 診有陰陽’은 『素問·方盛衰論篇 第八十』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진단에 있어서 十度和 陰陽을 좇아 전면진단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脈合四時陰陽矩規’는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맥진의 시간, 맥상과 사시의 관계 및 다종질병의 맥상을 설명하고 있다.

‘四時藏脈病有太過不及’은 『素問·玉機眞藏論篇 第十九』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사시오장의 평맥과 太過不及의 맥증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脈分四時無胃曰死’은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오장의 평맥, 병맥, 사맥 및 오장맥상과 사시역종의 진단방면에 있어서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逆從四時無胃亦死’은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에서 인용한 내용, 『素問·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에서 인용한 구절, 『素問·玉機眞藏論篇 第十九』에서 인용한 내용 등으로 맥역사시, 맥증상반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五臟平, 病, 死脈胃氣爲本’은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오장의 평맥, 병맥을 설명하고, 또한 이들 맥과 胃氣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三陽脈體’는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삼양맥의 맥상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있다.

‘六經獨至病脈分治’는 『素問·經脈別論篇 第二十一』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육경경맥의 편성으로

발생하는 병증과 치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寸口尺脈診諸病’은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촌구의 진과 척부진에 있어서의 상견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部位’는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척부맥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呼吸至數’는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평인의 맥기와 호흡에 이르는 맥의 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五臟之氣脈有常數’는 『靈樞·根結 第五』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종맥의 박동차수로 장기의 성쇠를 추측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搏堅奕散爲病不同’은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오장의 각종질병의 맥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진단의 큰 대강이 되는 ‘맥’에 대한 정상, 비정상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 등을 설명하고 있는 강좌 형식의 연재물이다.

· 外科學

‘外科學’이라는 제목 하에 外科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靈樞·癰疽 第八十一』의 전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먼저 癰疽에 대한 개괄적이 설명을 한 후에 癰疽의 발병 부위에 근거하여 각종 癰疽의 명칭을 열거한 후 각각의 증치와 예후를 설명하고 있는 강좌형식의 연재물이다.

· 臟腑論<sup>74)</sup>

‘장부론’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글은 唐宗海<sup>75)</sup>의 『中西匯通醫經精義』의 내용을 순서대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은 장부의 생리 및 병리에 대한 설명이다. 모두 25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人身陰陽, 五臟所生, 五臟所屬, 五臟所藏, 五臟所主, 臟腑所合, 營衛生會, 六經六氣, 經氣主治, 十二經脈, 衝任督帶, 全體總論, 五臟所傷, 五臟所惡, 臟腑爲病, 諸病所屬, 四時所病, 臟腑通治(臟腑相關), 望形察色, 聞聲別證, 問察原委, 診脈精要, 審治處方, 氣味陰陽, 性味宜忌, 七方十劑 등의 소제목 하에 장부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內經』의 장부에 관한 설명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西洋醫學의 이론을 대비시킨 것이다. 또한, 장부의 모양이나 위치 등을 설명함에 있어 서양해부학적 지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특히 『醫林改錯』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醫林改錯』의 실증

74) 『東西醫學報』 제 2호 ~ 『朝鮮醫學界』 제 9호.

75) 唐宗海(1846~1897)는 그의 저작인 『中西匯通醫書五種』을 통하여 ‘中西匯通’이라는 말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전통의 약을 보존하고 발양시키기 위하여 中醫學이 非科學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힘썼다. 또한, 東西醫學에 각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 일부 서양 해부생리학 지식을 흡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적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장부에 대한 생리와 병리 등을 설명하고 있는 강좌 형식의 연재물이다.

· 本草問答

‘本草問答’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글은 청나라 말기 唐宗海가 지은 『本草問答』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취하여 실은 것이다. 『本草問答』이라는 책은 본래 본초학의 이론을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풀어 서술하고 있는 本草學의 명저로 알려져 있는 책으로, 그 내용은 陰陽五行, 形色氣味 등 한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약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本草問答』을 인용하여 본초에 대하여 서술을 한 강좌형식의 연재물이다.

· 傷寒學

‘傷寒學’이라는 제목 하에 唐宗海의 『傷寒論淺注補正』의 일부 내용을 차례로 싣고 있는 글이다. 첫머리에 ‘熱病者 皆傷寒之類也’<sup>76)</sup>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상한에 대한 인식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唐宗海의 저작 중 주석에 해당되는 중요부분을 뽑아 강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매 잡지마다 ‘辨太陽病脈證’, ‘辨陽明病脈證’ 등과 같은 제목 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 강좌 형식의 연재물이다.

· 雜病學

‘雜病學’이라는 제목 하에 唐宗海의 『金匱要略淺注補正』의 일부 내용을 차례로 싣고 있는 글이다. 臟腑經絡先後病脈證, 瘧濕喝病脈說, 瘡病脈證, 中風歷節病脈證, 血痺虛勞病脈證,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 奔豚氣病脈證治, 胸痺心痛短氣病脈證治,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 五臟風寒積聚病脈證, 痰飲咳嗽病脈證治,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 水氣病脈證 등의 제목 하에 『金匱要略』의 원문에 주를 단 형식의 서술로 잡병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하고 있는 강좌 형식의 연재물이다.

· 血證論

‘血證論’이라는 제목 하에 唐宗海의 『血證論』의 내용을 순서대로 옮겨 적고 있는 글이다. 陰陽水火氣血論, 男女異同論, 臟腑病機論, 脈證死生論, 用藥宜忌論 등의 기본 이론 및 吐血, 嘔血, 咯血, 唾血, 咳血, 鼻衄, 腦衄, 目衄, 耳衄 등의 각종 출혈질환의 증상들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는 강좌 형식의 연재물이다.

이상과 같이 동의학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內經』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청나라 말

76) 『素問·熱論篇 第三十一』

기의 유명한 의사인 唐宗海가 지은 『中西匯通醫書五種』을 근간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당시 한의계에서도 唐宗海가 시도했던 中西匯通의 방법이 조선의 韓醫界를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 2) 參考科

‘參考科’라는 제목 하에 여러 가지 자연과학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마치 지금의 의과대학에서 예과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흡사한데, ‘이화학’, ‘박물학’ 등의 제하에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 理化學

‘理化學’이란 제목 하에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기초 자연과학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강좌이다.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은 物體의 重力, 重量, 密度, 槓子, 衡及天秤, 音響 등의 소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音의 發源, 音의 波動, 音의 傳達, 音의 高低, 音의 強弱, 音의 反響, 噪音과 樂音, 音의 速度水壓 등의 소제목으로 音響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화학과 관련된 내용은 物體의 膨脹, 液體의 膨脹, 固體의 膨脹, 溫度, 鎔融, 凝固, 結晶, 蒸發, 蒸溜, 毛管現象, 瀰散及滲透, 炭化, 燃燒의 果成物, 酸素 등의 소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水平面, 大氣壓力, 空氣의 成分, 炭酸瓦斯, 水素, 水의 成分, 有機物의 成分, 磁石, 磁性體, 磁石의 極, 磁石兩極의 作用, 磁氣의 感應, 地磁氣 등의 소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 · 博物學

‘박물학’이란 제목 하에 동물학, 식물학 등 생물학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강좌이다. 植物學에서는 植物界, 植物의 形態와 生理, 根, 莖, 雙子葉植物, 單子葉植物, 雙子葉植物單子葉植物의 比較, 裸子植物, 隱花植物, 顯花植物, 昆布, 苔類, 菌類 등의 소제목으로 식물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動物學에서는 脊椎動物, 哺乳類, 猿類, 食肉類, 有蹄類, 鳥類 등으로 동물계를 나누어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 3) 西醫學

‘西醫學’은 서양의학을 소개하는 강좌이다. 여기서는 서양의학의 기초적인 ‘해부학’, ‘생리학’부터 ‘진단학’, ‘약물학’, ‘전염병학’, ‘외과학’ 등 각각의 임상과목에 가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서양

의학의 강좌가 동의학강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점도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解剖生理學

‘해부생리학’이라는 제목 하에 해부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강좌이다. 강좌의 순서는 골학, 근육학, 내장학, 순환계, 신경계, 조직 등의 차례이다. 먼저 緒論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에 각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설명의 순서와 체계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이루어져 있다.

· 診斷學

‘진단학’이라는 제목 하에 환자를 처음 대했을 때부터 차례대로 환자를 진찰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강좌이다. 먼저 緒論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에 訊問, 診査 등의 소제목으로 진찰의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藥物學

‘약물학’이라는 제목 하에 약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강좌이다. 먼저 緒論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에 總論에서는 藥物的作用, 藥物應用, 藥物用法 등을 서술하고, 藥效概要, 藥物的施用部及用法, 處方學 등의 소제목으로 약리학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傳染病學

‘전염병학’이라는 제목 하에 전염병에 대하여 발생, 경과, 치료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언급을 하고 있는 강좌이다. 먼저 緒論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을 한 후에 傳染病的 感染과 素因, 傳染病的 預防, 傳染病에 對한 不感受性及感受性, 傳染病的 分類, 傳染病的 消毒法, 傳染病患者의 取扱法, 傳染病患者의 診察法 등의 소제목으로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

· 外科學

‘외과학’이라는 제목 하에 외과질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강좌이다.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總論에서는 緒論, 創傷論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는 처음으로 頭部의 外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頭蓋軟部 및 頭蓋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外傷 및 疾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4) 其他 關聯 內容



여기에는 의학에 관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다. ‘역사’, ‘육아법’, ‘양생법’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의학자들의 다양한 지식욕구와 그것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 朝鮮醫史

韓醫學의 역사에 관하여 韓醫學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는 강좌이다. 醫藥의 起始에 관해서는 東西醫學의 創始를 모두 언급하고 있고, 朝鮮醫史에서는 특히, 朝鮮痘史에 대한 서술을 상세하게 하고 있다.

· 育兒新法

아이를 기르는 방법을 태어났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강좌이다. 태어났을 때 臍帶의 處置부터 시작하여 溫浴, 被服, 峻下劑, 初生兒의 膿漏眼, 胎髮, 授乳及授乳의 規律, 小兒의 啼泣, 哺乳兒의 抱法, 小兒의 寢臥, 愛玩의 害, 外出의 時期, 頭巾과 襁褓, 母乳, 母乳의 禁忌時, 乳母, 乳母의 攝生法, 授乳의 營養法, 牛乳鑑識法, 牛乳의 鑑識法, 凍乳(罐頭乳), 哺乳期, 人工品營養法, 授乳休止의 時期(斷乳의 期), 哺乳休止後營養法, 護兒人, 種痘, 小兒의 懲戒, 小兒의 嗜好, 小兒의 玩具, 小兒의 遊戲 등 30여개의 소단원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자못 상세하다.

· 健康長壽養生論

일본인 의사인 靑柳綱太郎이 『朝鮮醫學界』의 사장으로 지내면서 잡지에 연재한 글로 ‘養生’에 관한 저자의 독특한 견해를 펼치고 있는 글이다. 大隈侯의 百二十五歲說이라는 소제목의 글로 시작하여 天命論 등의 제목으로 양생에 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4) 『東西醫學研究會月報』

1923년 12월 31일에 창간이 되어 1925년 10월 18일에 革新 제 1호를 발간하고 폐간이 된 『東西醫學研究會月報』는 그 내용에 있어 이전에 간행된 잡지와 크게 구별된다. 이전에 잡지가 계몽적 글, 다른 의서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소개, 서양의설에 대한 소개 등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잡지는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그 목적성은 강의형식의 연재물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강의형식의 연재물들은 당시 醫生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이미 醫生이 되었지만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재교육, 韓醫學에 뜻을 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등의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점

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韓醫學과 관련된 내용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는 韓醫學교육을 위한 내용의 글들이 연재되어 있다.

『東西醫學研究會月報』의 첫머리에는 「明堂仰圖」<sup>77)</sup>, 「明堂伏圖」<sup>78)</sup>, 「臟腑圖」<sup>79)</sup> 등의 그림이 나와 있다. 이는 『醫學入門』의 처음에 나오는 ‘明堂仰伏圖’와 ‘臟腑圖’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림을 전재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많은 의서에서 첫머리에 ‘臟腑圖’나 이와 유사한 그림을 배치하여 저자의 인체관 등을 담아내는 것처럼 『東西醫學研究會月報』의 편집진도 위와 같은 그림을 통하여 동 잡지의 편집방향과 의학관을 나름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百病略論」<sup>80)</sup>은 金性基가 쓴 것으로 질병의 감별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의 첫머리에 서술되어 있는 각종 질병의 구분법은 李東垣의 『內外傷辨惑論』에서의 內外傷을 감별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이후 다른 질병에 대한 감별법 내지 특징을 서술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온갖 의서를 아주 축약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느낌을 준다. 頭痛, 耳聾, 口味, 口渴 등에서부터 陽維, 陰維의 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병의 감별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頭痛은 ‘無間歇爲外感, 有間歇爲內傷.’이라고 하여 구별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東醫寶鑑』의 ‘臟腑門’에 나오는 ‘五臟相關’의 내용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가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을 두루 섭렵하고 있는 아주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다.

「東醫論」<sup>81)</sup>은 姜理煥이라는 의생이 쓴 글이다. 이 글은 사람의 출생, 성장과정 및 生理에 관한 내용을 人始生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 胃及脈, 氣血, 經絡, 海, 人之常平, 五臟(小大, 高下, 堅脆, 端正, 偏傾), 六腑(大小, 長短, 厚薄, 結直, 緩急), 臟象, 氣度, 營衛 등의 소재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글이다. 이상의 내용을 『周易』, 『參同契』, 『黃庭經』, 『內經』 등의 經文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外感及內傷의略說」<sup>82)</sup>은 吳泰遊<sup>83)</sup>가 쓴 글로 內傷과 外感의 감별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예를 들면, ‘外感者 寒熱二氣 不和於外 邪自表傳裏 變生雜病而言 內傷者 陰陽二氣 不和於內 病自裏累表

77)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2호

78)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3호

79)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4호

80)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4호 ~ 제 5호

81)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5호 ~ 제 6호

82)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5호

83) 1867 ~ ?. 東西醫學研究會 庶務部長.

變成雜病而言.’ 등의 방식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杏林秘笈」<sup>84)</sup>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은 글이다. 이 글에서는 四六湯, 六鬱湯, 二陳湯, 歸朮飲, 九味羌活湯, 理中湯 등 여러 가지 처방의 구성약물, 분량 및 가감법 등을 칠언절구형식으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二陳湯을 通治痰하는 약물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半夏二錢赤茯苓, 橘皮一錢炙甘五. 氣滯上焦心胸痞, 更角縮砂香附子.  
氣滯中焦服脇刺, 厚朴只實蓬三稜. 氣滯下焦腰疝痕, 青皮檳榔加木香.  
火熱生濕濕生痰, 酒芩羌活加防風. 濕入沈困加桑白. 上加羌活蒼朮芎,  
中加豬澤赤茯苓, 下加防己木通滑. 溫熱在上加黃芩, 中加黃連下黃栢.

「壽夭說」<sup>85)</sup>은 金鎖世가 지은 글로 『周易』, 『素問·上古天真論』 등에 근거하여 사람의 壽夭에 대하여 서술한 글이다.

「脈法」<sup>86)</sup>은 金性璣가 쓴 글로 二十七脈脈動有準, 七表, 八裏, 十二道, 相類脈, 相反脈, 十怪脈, 諸病主脈, 諸病體狀, 五臟脈, 六腑脈, 四時正脈 등의 소제목 하에 脈理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勞瘵論」<sup>87)</sup>은 金海秀가 쓴 글로 孫眞人, 朱丹溪, 葛乾孫, 滑伯仁, 王節齋 등의 이론과 『內經』 등의 경문에 근거하여 勞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다. 勞瘵의 종류, 증상, 치법, 처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韓醫學에 관련된 내용의 글들은 같이 실리거나 연재된 서양의학 관련 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도 적고 내용도 허술한 면이 없지 않다. 이것이 바로 『東西醫學研究會月報』의 간행 목적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은 양의 글일지라도 그 내용이 韓醫學 경전에 바탕하고 있으며 깊이가 있는 것들임은 주목할 만하다.

## 2) 서양의학과 관련된 내용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는 서양의학교육을 위한 내용의 글들이 많이 연재되었다. 그 연재물들은 다음과 같다.

「鞏丸內分泌과脂肪의關係에就하야」<sup>88)</sup>는 CK生<sup>89)</sup>이라고 밝힌 저자의 글로 “鞏丸內分泌의 有無

84)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5호

85)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6호

86)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6호

87)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6호

88) 『東西醫學研究會月報』 創刊號

89) 이 시기의 잡지에는 이와 같이 이름의 영문 이니셜만을 써서 저자를 밝히고 있는 글들이 많은데, 이는 당시의 유행이었던 듯 하다.

는 男性의 性狀을 變化시켜 喉頭 및 鬚髯, 踞趾의 발육 등에 影響을 미치며 동시에 皮脂腺의 分泌에도 一定한 關係가 있다.”는 內容을 引고 있는 글이다.

「肺結核早期診斷上要点」<sup>90)</sup>은 NS라고 밝힌 이가 번역을 한 것으로 ‘活動性的 診斷’, ‘陽性診斷에 對의 最小한 要求’ 등의 소제목으로 폐결핵의 진단방법에 對하여 서술하고 있다.

「稀有한一急性心臟衰弱症에對한所見」<sup>91)</sup> CK生이 쓴 것으로 心臟神經痛으로 정의되는 本病에 對하여 증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患者의 가족력, 기호, 기왕력, 發病당시 症후, 治療경과, 필자의 소견 등을 서술하고 있다.

「骨學의概要」<sup>92)</sup>는 閔哲鎬<sup>93)</sup>가 쓴 글로 의사가 해부학을 알아야 하는 당위성을 모두에 제시한 후, 骨의 主成分, 骨의 조직, 연골 등에 對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神祕한月經과婦人의性的生活」<sup>94)</sup>는 C生이라는 사람이 『性公論』이라는 책을 번역하여 전제한 글이다. ‘婦人問題의 中心과 月經’, ‘月經과 婦人病及精神障害’, ‘經血의 性質’, ‘月經의 閉止와 妊娠’, ‘月經과 性慾’, ‘破産期와 更年期及結論’, ‘月經에 關한 研究綱目’ 등의 제목 下에 女性의 월경과 이에 수반하는 諸般 문제에 關한 內容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簡易肺病療法」<sup>95)</sup>은 NS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으로 ‘肺結核의 原因’, ‘結核菌을 殺하는 法’, ‘結核性疾病의 種類’ 등의 제목으로 폐병 中에서 結核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 3) 東西醫學의 匯通에 關한 內容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는 東의학과 서의학을 結合하려는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이는 단순한 結合이나 흡수하는 형식이 아닌 각각의 長점을 취하려고 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시도가 東서의학간의 명칭 比較이다. 「東西病名對照表」<sup>96)</sup>라는 글에서는 130여 가지의 병명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中風症은 末梢神經麻痺, 口眼喎斜는 顔面神經麻痺, 卒中風·厥逆은 腦出血, 怔忡症은 心臟神經症, 癩疹은 蕁麻疹, 帶下는 子宮內膜炎 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병명의 比較를 통하여 서양의학과 東의학의 相通점을 찾으려고 한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두 번째 시도는 「中央總部講壇에서」<sup>97)</sup>라는 글에서 東西醫學研究會의 中央總部에서 개최한 강연

90)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2호  
91)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2호  
92)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3호  
93) 1888~?. 日本名 文門學彦.  
94)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3호  
95)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3호  
96)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창간호

회의 내용을 소개한 것에서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洋診韓治와 漢診洋治이다. 姜浚杓<sup>98)</sup>가 紅疫에 대한 강연을 하였는데, 紅疫의 原因, 病症, 療法, 消毒, 調理 등에 대하여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그 원인을 肺胃로부터 發源한다고 보고, 療法으로 升麻葛根湯을 소개하고 있다. 劉根永<sup>99)</sup>은 天然痘에 대한 강연을 하였는데, 천연두의 原因, 症狀, 療法, 預防, 調理 등에 대하여 서술한 후, 원인을 六腑의 열과 세균의 침입으로 보고 요법으로는 서양약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예방법은 중두를 시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들은 치료법은 洋診漢治, 漢診洋治를 시도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세 번째 시도는 「麻疹에就하야」<sup>100)</sup>라는 글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서양의학적 방법론의 도입이다. 趙容準<sup>101)</sup>은 이 글에서 麻疹의 原因을 서술한 후 猩紅熱과 麻疹의 症狀, 預後, 療法, 豫防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각 질병의 정의 등은 서양의학적 설명을 도입하고, 脈診, 治法 등은 韓醫學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 4) 四象醫學에 관한 내용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는 四象醫學에 대한 강의가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 都殷珪가 「四象醫學의解說」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이 연재물은 창간호부터 잡지가 폐간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글은 四象醫學의 발생배경에 대하여 서술하고, 李濟馬의 학문적 깊이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都殷珪는 여기에서 “四象醫學은 순전히 性理道德에 바탕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東醫壽世保元』의 원문을 나열하고 저자의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띠고 있다. 제 1장 ‘性命論’부터 제 2장 ‘四端論’까지 연재하던 도중 갑자기 잡지의 폐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 5) 임상연구의 강화하는 내용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는 다양한 임상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거나 서양의학적 실험의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 중 하나는 「特效方」<sup>102)</sup>이라는 제목으로 慈生醫院長인 金性璣가 보고한 것이다. 東西醫學研究

97)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2호  
 98) 1865 ~ ?. 東西醫學研究會 評議員.  
 99) 東西醫學研究會 全南地方部長  
 100)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6호  
 101) 1881 ~ 1966. 日名 天林華岡  
 102)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2호

會 회장인 金性璫가 당시 낙원동에서 의원을 하면서 치료한 醫案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예는 ‘痘後餘熱未淨의病’을 치료한 療熱解毒湯이라는 처방이다. 처방의 구성 약물은 連翹, 防風, 羌活, 柴胡, 南星, 半夏, 桔梗, 前胡, 牛蒡子, 枳殼, 赤茯苓, 荊芥穗, 川芎, 甘草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예는 ‘暴怒傷肝의病’을 치료한 補腎平肝湯이라는 처방이다. 처방의 구성약물은 熟地黃, 白芍藥, 山茱萸, 麥門冬, 柴胡, 山梔子, 白芥子 등이다.

다른 하나는 「朝鮮人の胃液研究」<sup>103)</sup>라는 실험보고서로 京專醫學士 李載澤이 쓴 것을 張聖世가 번역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胃液의 연구가 민족의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健康歐洲人에 對하여’, ‘健康日本人에 對하여’라는 제목으로 평균인의 酸量을 규정한 후, 16세에서 40세에 이르는 123명의 조선인 남여를 대상으로 한 검사치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조선인의 독특한 食生活 양식으로 말미암아 서양사람들과는 酸量의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병의 양태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나온 『漢方醫藥界』,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등 여타 잡지가 단순히 『內經』, 『傷寒論』 등 경전에 보이는 문장을 나열하거나 서양의학 교재를 전제하여 교육적 목적만을 만족시키고자 한 데에 지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본 잡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의안을 신고 임상연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새롭다 할 것이다.

#### 6) 衛生論에 관한 내용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는 衛生學에 관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이는 당시에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衛生論이 대두된 데 기인하는 듯하다. 그 중 하나가 「衛生學의大意」<sup>104)</sup>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인데, 이는 『衛生要義』라는 일본 서적을 轉載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衛生學을 公衆衛生法과 各自衛生法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이야기한 후, 위생학의 목적, 연혁, 위생사업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個人的衛生과 社會的衛生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社會發達과 衛生, 土地와 健康, 地中の 氣體와 水, 地中の 溫度와 腐敗, 空氣, 氣象 등 다양한 각도에서 위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 7) 실생활에 접근 하는 의학

103)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3호 ~ 제 4호

104)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2호 ~ 제 3호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는 생활건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글이 많이 실려 있다. 이는 근대적 의학의 예방의학의 개념이 도입된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鰻魚에對한注意」<sup>105)</sup>라는 글로 醫師 金溶琛가 쓴 글이다. 이 글에서는 복어에 있는 독의 성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중독되었을 때의 증상 및 처치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토하거나 설사를 시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 또한 ‘秘笈瑣錄’이라 하여 토법을 행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蘆根汁, 成人屎汁, 或香油多灌吐出即愈.”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羊蹄草汁, 或藍汁或槐花末三錢新汲水調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술과 담배에 관한 내용으로 「衛生上, 道德上으로보아 酒의害毒, 煙草의害毒」<sup>106)</sup>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酒의害毒’에 대해서는 虞國華가, ‘煙草의害毒’에 대해서는 외국인 크레쓰가 쓴 글이다. 각각 술과 담배의 해독에 대하여 서양이론 및 실험결과 등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 (5) 『東洋醫藥』

1930년대 중반에 발간된 『東洋醫藥』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해 주는 잡지이다. 민족주의 정신의 고취로 인하여 우리민족 자존을 내세우는 분위기가 사회 각 분야에서 팽배해짐에 따라 『東洋醫藥』도 그러한 의식을 한의들에게 자극하고 고취시키는 내용들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東洋醫藥』의 내용은 대부분 韓醫學에 관한 이론 설명, 논설, 강의형식의 연재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0년대까지 나온 잡지들이 많은 분량을 서양의학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던 것과는 달리 『東洋醫藥』은 순수한 韓醫學만을 언급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이는데, 이는 1930년대 韓醫學의 변화양상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東洋醫藥』의 구성 내용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漢醫學復興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漢醫學復興에 관한 논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는 당시에 서양의학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의료계 전체에 팽배하게 되면서 조선의 전통의학인 漢醫學을 발전시키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第一號에 실린 金永勳과 張基茂의 글이 이를 반영해 주는 대표적인 글들이다. 金永勳은 「漢方醫學復興論에對하여」<sup>107)</sup>라는 글에서 “조선의 현실이 인구에 비해 턱없이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 고급스런

105)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2호

106)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 2호

107) 『東洋醫藥』 第一號

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에서의 진료가 좋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선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시급한 조선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漢方醫藥이 중요하다.”면서 한방의학의 부흥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張基茂는 「漢方醫學革新論-朝鮮新醫學建設의前提로-」<sup>108)</sup>라는 글에서 “서양의학자의 시각에서 韓醫學을 바라보아서 가능성과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漢方醫學의 史的考察, 漢方醫學의 朝鮮에서의 地位, 漢方醫學衰退의 遠因과 近因, 漢方醫學革新의 意義, 科學上으로 본 漢方醫學, 民族的으로 본 漢方醫學, 漢方醫學의 將來 등의 소제목 하에 韓醫學 革新論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東西醫學研究會가 추천하여 漢方醫學의 철저한 革新을 이룩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담고 있다.

## 2) 醫學史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醫學史를 소개하는 글이 여러 편 실려 있다.

靈光學人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가 第一號에 쓴 「漢方醫學의輪廓」<sup>109)</sup>이라는 글은 저자가 韓醫學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緒言, 東洋醫藥의 元祖神農氏, 黃帝岐伯과 素問, 靈樞, 張仲景과 傷寒論, 金, 元, 明 三時代의 醫學과 本草, 李濟馬와 四象論, 漢方醫學의 今後, 結語 등의 소제목 순서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까지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金永勳이 쓴 「漢醫學의今昔」<sup>110)</sup>이라는 글도 또한 漢醫學史의 概要를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併記하며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삼국시대 및 남북국 시대의 韓醫學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의학의 傳來 과정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 3) 脈學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脈學에 대한 글이 연재되었다. 趙憲泳이 연재한 「漢方脈學의新研究」<sup>111)</sup>라는 글이다. 趙憲泳은 이 글을 통하여 脈學의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글은 脈字의 意義, 脈과 生命, 生體異變의 種類와 脈動의 變調의 狀態의 不均等性, 脈學研究의 方法, 脈의 部位, 診脈의 五代基準, 診脈의 段階 등의 소제목 하에 각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脈學研究의 方法에 있어서는 脈의 變化를 驗察, 病과 脈을 對照, 脈에 依하여 症狀를 判斷, 脈法의

108) 『東洋醫藥』 第一號

109) 『東洋醫藥』 第一號

110) 『東洋醫藥』 第二號

111) 『東洋醫藥』 第一號 ~ 第三號



새 方面을 開發하는 등의 方法을 제시하여 맥진의 重要性 및 유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診脈의 五大基準에 따라 十二原脈을 소개하여 脈診의 기준점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 4) 本草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本草와 藥物에 대한 글이 많이 실려 있다.

趙憲泳이 쓴 「本草藥理學과菅百草說」<sup>112)</sup>, 「本草藥理學과氣味論」<sup>113)</sup> 등의 글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 두 편의 글에서 本草藥理學의 기초인 氣味論을 잘 이해하는 것이 韓醫學연구에 크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氣味와 陰陽, 氣味の 相互關聯性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趙憲泳은 또한 「漢藥法製(修治)는 왜하는가」<sup>114)</sup>라는 글을 통하여 한약 수치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炮, 煨, 灸, 炒, 陰乾, 酒製, 酒洗, 酒浸, 酒蒸, 酒炒, 酥灸, 薑汁製, 童便製, 鹽製, 醋製, 蜜製, 米泔汁製, 乳汁製, 甘草湯潰, 陳壁土炒 등의 方法 및 修治 후의 效能과 각각의 해당 藥物들을 소개하고 있다.

成周鳳은 「藥材改良의必要」<sup>115)</sup>라는 글을 통하여 眞正한 약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약재가 不精하면 中病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당시의 한의사들이 약재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誤用되고 있는 여러 약재들의 예를 들어 가면서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전혀 다른 종류의 약을 쓰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수입산 약이 대부분 가짜이며, 값이 싸다는 이유로 효능이 다른 약을 비슷하게 섞어 쓰는 등의 당시의 현실을 辛辣하게 비판하고 있다.

#### 5) 四象醫學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四象醫學에 대한 글이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 이는 당시의 四象醫學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李乙浩가 쓴 「四象醫學의研究」<sup>116)</sup>라는 글이 연재되었다. 그는 이 글에서 李濟馬의 四象醫學論을 설명하였는데, 李濟馬와 四象醫學, 四象醫學의 理想, 四象人의 四大類型 등의 소제목 하에 사상의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李濟馬의 人體生理論이라는 제목으로 肺脾肝腎의 部位, 腑官의 職能과 互相關係, 肺之黨, 脾之黨, 肝之黨, 腎之黨과 其他 등 臟腑論을 서술하고 있다.

112) 『東洋醫藥』 第一號

113) 『東洋醫藥』 第二號

114) 『東洋醫藥』 第二號

115) 『東洋醫藥』 第三號

116) 『東洋醫藥』 第二號 ~ 第三號

『東洋醫藥』의 편집부는 독자들을 위하여 『東醫壽世保元』 원문을 전재하고 있다. 「李濟馬四象醫論抄錄」<sup>117)</sup>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이 글은 趙憲泳이 四象醫學과 李濟馬에 대한 解題를 붙이고 『東醫壽世保元』 원문을 순차적으로 싣고 있다.

#### 6) 독자들의 질의에 응답한 글

『東洋醫藥』에는 독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해주는 의료상담 형식의 글과 통신강의 형식의 글이 실려 있다. 前者는 「療養顧問」<sup>118)</sup>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이고, 後者는 「誌上教室」<sup>119)</sup>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이다.

「療養顧問」은 독자가 진료상담을 요청하면 『東洋醫藥』 편집부에서 처방 및 처방 등을 답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第二號에 문의된 병증들을 살펴보면 虛弱症, 七年된肺病, 産後의虛弱症, 健忘症, 幼兒慢驚, 子癇症과子懸症, 腎虛症, 蓄膿症 등 다양한 질병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第一號에는 ‘幼兒吐乳의家庭漢方療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吐乳의 원인은 모체가 陽虛氣虛해야 생리적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白朮을 단미요법으로 쓰거나 五味異功散을 복용하면 된다. 人蔘이 高價라서 쓰기 어려울 때는 平胃散을 복용시킨다.”라고 하여 독자들의 경제적 형편까지 고려한 자상한 상담을 하고 있다.

「誌上教室」은 漢醫業 종사자 및 學生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취하고 있는 글이다. 여기에는 서신으로 접수된 질문뿐 아니라 당시의 지방 醫藥講習會場에서 나왔던 질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第二號에 실린 질문들을 살펴보면 膽病에發黃은何也오, 三焦는어떤것인가, 桃花色의얼굴과肺病, 胎兒는 왜거꾸로있나, 太過·不及·平氣年, 臟病은相克·腑病은相生, 五臟相生을說明해주시오, 水昇火降을說明해주시오, 五運六氣를說明해주시오, 男主左女主右, 陽明三病 등 韓醫學 기초이론에서부터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 日帝時代 韓醫學의 변화상

日帝時代に 간행된 韓醫學術雜誌를 통해서 일제시대 韓醫學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

117) 『東洋醫藥』 第一號 ~ 第二號

118) 『東洋醫藥』 第一號 ~ 第三號

119) 『東洋醫藥』 第二號 ~ 第三號

러한 시기구분은 일반적인 역사 구분과 그 궤를 같이하는 면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제시대에 간행된 韓醫學術雜誌의 발행에 기준하여 나누어 본 것이다. 이는 잡지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발행될 때마다 나름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여 주는데, 이를 통하여 그 시기를 구분하여보면,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1945년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각 시기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의계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1910년대 : 韓醫學 부흥론의 대두기

일본의 강압적 요구에 의해 한일합방이 체결된 것은 우리민족 전체의 크나큰 슬픔이었다. 하지만, 한민족은 폭압적인 일제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권을 잃은 슬픔을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합방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10년대는 민족적 저항이 커진 시기이다. 이러한 민족적 저항의 분위기에 한의계가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 사라져가는 韓醫學을 부흥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韓醫學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과 韓醫學말살에 대항하는 투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쟁은 안팎으로 나타나는 한의계의 변화, 韓醫學術雜誌 발간을 통한 학술적 노력, 의학강습소를 통한 韓醫學교육의 강화 등 몇 가지의 양상으로 나누어진다.

### (1) 한의계의 변화

서세동점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서양식으로 바뀌어가는 혼란의 시기에 한의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서양의료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바뀌에 따라 韓醫學의 설자리는 더더욱 좁아지며 구한말부터 쇠퇴의 길을 걸어온 韓醫學은 한일합방과 동시에 매서운 변화의 풍랑 속으로 내던져 지게 된다. 이처럼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의계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는 서양 의학 중심의 의료제도로의 변화, 의생제도 성립과 韓醫學 위상의 격하, 한의사단체인 전선의학회의 결성 등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 1) 의료제도의 변화

서양 제국주의가 물밀 듯이 아시아에 밀려온 19세기는 아시아 각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일찍이 개항을 하여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서양문화의 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개화와 수구세력의 대립양상이 오랫동안 지속된 조선의 경우는 문화충돌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19세기 중엽부터 구미각국과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외국 선교의사의 입국은 구미

의 의학이 조선에 유입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콜레라의 예방법, 種痘法 등이 선교사에 의해 무상으로 시술되면서 서양의술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서양의학과 韓醫學의 이원적 의료체계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특히, 우정국사건 때 알렌(Allen)이 閔泳翊을 치료한 계기로 서양의학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리고, 1894년에 실시된 갑오개혁은 종래의 韓醫學법의 폐지와 서양의학법의 전면적 실시로 韓醫學은 자연도태되고 서양의학은 정책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개혁을 계기로 행하여진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행정제도가 서의학 중심으로 바뀔에 따라 정부조직의 명칭이 衛生局, 衛生課, 醫務課, 保健課, 衛生試驗所 등으로 바뀌게 된다.<sup>120)</sup> 또한, 濟衆院, 內部病院, 廣濟院, 大韓病院, 慈惠醫院, 順化醫院, 大韓赤十字病院 등을 설립하여 병원의 직제도 개편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자 韓醫學은 더욱더 기울어져가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韓醫學을 무시할 수 없기에 서의식 병원에 한방과를 병설하고, 한의과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미미한 韓醫學 살리기 양상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도 1906년 濟衆院의 의사에 한해 예고도 없이 법에도 없는 洋醫學의 고시를 실시하여 韓醫인 醫士들을 낙제시키고 자격미달이라 해서 廣濟院의 韓人 醫師들의 축출을 감행하면서 일본인 의사에게 전권을 장악하게 하여 1908년에는 서의식 병원에 韓醫가 한사람도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양의학의 몰락공세적인 세력 확장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한의계를 더욱더 위축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한의사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 2) 의생제도 성립과 韓醫學 위상의 격하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일제는 식민지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식민지 백성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한 의료제도를 갖추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실상이 아직 西醫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확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韓醫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913년 11월 15일에 발표된 醫生제도<sup>121)</sup>라는 애매모호한 제도를 만들어 東醫들을 여기에 등록시킴으로써 신분을 격하시켰다. 이 제도는 19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처럼 ‘醫生’이라는 격이 낮은 신분으로 격하되는 것은 韓醫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생제도는 韓醫學 말살기도의 시작인 셈이다.

이와 같은 의생제도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니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으로 醫生이라는 의료인이 생김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부 의생들을 많이 만들어 냈는데, 이와 같은 附則으로 인하여 많은 限年, 限地의 醫生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儒醫들이 분개하여 면허증을

120) 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서울, 1998. p.495-496

121) 당시의 현실이 西醫를 많이 양성하여 東醫를 한꺼번에 말살하기가 어려움을 깨달은 일제가 서의인력이 양성될 때까지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東醫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1913년에 의생제도를 처음 실시할 당시의 醫生 면허획득자 5813인이었는데, 이는 당시의 醫師免許者가 641인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그 수가 1924年度에 4300餘人(限地醫生 包含), 1936年度에 3739人(限地醫生 包含), 1944年度에 3235인(限地醫生 包含)이었던 것을 보면 많은 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생의 수가 유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총독부의 이와 같은 자료에서 그들이 의생이라는 의료인의 제도를 마구 남발함으로써 의료인의 전체적 질적 저하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의를 양성하기위한 교육기관은 사설 의학강습소 몇 곳에 지나지 않았고, 한곳의 정원이 각 학년 당 30명 남짓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본다면 많은 수의 의생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전선의회의 결성

일제가 조선을 강압적으로 합병한 후 실시한 강력한 억압 통치는 1910년대를 지나면서 계속된다. 1913년에 실시한 의생제도도 韓醫學을 말살하려는 억압통치의 하나였다. 의생제도의 실시에 의기소침해 있던 한의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1915년 가을에 서울에서 일제에 의해 共進會라는 산업박람회회가 열리게 되었다. 전국의 동의들은 이것을 한자리에 모여 韓醫學부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全國醫生大會의 개최를 준비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 자리를 기회로 韓醫學術雜誌의 재간행도 추진키로 계획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770여명의 의생들이 모여 이루어진 이 대회 of 강연회와 좌담회 등에서 韓醫學術雜誌의 간행이 역설되었다. 이듬해에 나온 『東醫報鑑』은 바로 이 대회의 결실인 것이었다. 이 잡지는 1916년 1월 1일에 이 대회에서 결성된 全鮮醫會<sup>122)</sup>가 창간한 학술기관지로서 같은 해 3월 1일에 제 2호까지 나오게 되었다. 전선의회의에서는 회장에 池錫永, 부회장에 崔東燮, 총무에 金壽哲, 임원에 趙炳瑾, 景道學, 金永勳 등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5월 19일 全鮮醫會清算會를 끝으로 해산되면서 동시에 잡지도 폐간되고 말았다. 의생제도 실시 후 처음으로 조직된 한의사단체인 전선의회의의 해체는 韓醫學 부흥을 위한 노력에 제동이 걸리게 한 사건이었다. 이 후 새로운 한의사 단체의 결성이 되기까지는 10여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그 동안 단체가 없는 어려움 때문에 개인들의 힘으로 행하여진 韓醫學 부흥 운동은 많은 좌절을 겪게 된다.

### (2) 학술적 노력

1910년대 한의계에서는 의생제도 실시 후 전선의회를 조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며

122) 1915년에 서울에서 일제가 개최한 산업박람회격인 공진회를 틈타 전국의 동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전국의생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전국에서 770여명의 의생들이 모여 강연회와 좌담회 등을 열었다. (이종형, 위의 논문)

韓醫學부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한의계의 韓醫學 살리기 노력은 투쟁일변도의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았다. 한의계에서는 학술적 노력을 통하여 韓醫學 살리기에도 힘썼는데, 이는 『漢方醫藥界』, 『東醫報鑑』 등 韓醫學術 잡지의 창간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된다. 이 당시 처음 창간된 이들 잡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의학 개량론, 韓醫學 학습의 독려 등을 주장함으로써 한의계의 학술적 노력을 고취시키고 있다.

### 1) 전통의학 개량론의 대두

수천 년간 민족의 건강을 수호해온 韓醫學이 일제가 강점한 후에 설자리를 잃게 되고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은 韓醫學을 사랑하는 한민족의 슬픔이었다. 韓醫學의 폐절은 민족 전통문화의 폐절이며 일제의 약육강식 논리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를 대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에 韓醫學者들을 중심으로 韓醫學의 부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漢方醫藥界』와 『東醫報鑑』 등에 나오는 여러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부흥을 위한 노력들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최재학은 『漢方醫藥界』 제 2호에서 ‘한방의학의 개량’이라는 논설을 통하여, 韓醫學의 개량할 점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는 한방의학이 개량해야 할 것을 진찰기구, 약재응용, 병원설비 등이라고 역설하고 있다.<sup>123)</sup> 이러한 개량에 개인의 역량을 모음으로써 韓醫學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韓醫學의 잘되고 안되고는 모두 韓醫 자신들의 책임이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말하며, ‘臨病以誠’, ‘用藥以誠’, ‘處方以誠’의 세 가지를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 갖추었다면 백성들의 크고 작은 병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호에서 서병림은 ‘醫門參古懲今’이라는 글을 통하여 韓醫學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天元玉冊』, 『本草經』, 『內經』 등 韓醫學의 역사를 잘 대변해 주는 서적들을 바탕으로 학문을 연마하여 日新又日新하는 자세로 한의들이 노력을 하여 韓醫學을 세상에 알릴 것을 독려하고 있다.<sup>124)</sup> 또한, 『東醫報鑑』 창간호에서 김윤식은 발간사를 통하여 ‘편견을 고수하는 아집을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학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韓醫學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sup>125)</sup> 이와 같은 韓醫學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경주하자는 주장들은 많은 한의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실천으로 이어져서 韓醫學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다.

집단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는 글로는 『東醫報鑑』 창간호에 실린 장기학의 ‘敬告我全鮮醫生’라는

123) 『漢方醫藥界』 제 2호

124) 『漢方醫藥界』 제 2호

125) 『東醫報鑑』 제 1호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무릇 우리 전선의생은 이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되니 신구활용하고 장족전진할 목적으로 전선의회에 힘을 합할 것이로다. 동의를 발전과 쇠퇴는 이 회의 완성여부에 있으니 어찌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워하지 말고 학문연구에 정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126)</sup> 그는 또한 전선의회에서 韓醫學의 부흥을 위하여 ‘의학회조직’, ‘의학회보간행’, ‘약재수용의개량’ 등의 삼대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삼대의안의 내용은 조직적인 韓醫學부흥운동을 위한 행동강령같은 것으로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

## 2) 韓醫學 학습의 독려

日帝時代 한의계에서는 韓醫學 학술을 진흥시켜 일제의 민족의학 말살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데에 뜻을 모으고 韓醫學術雜誌의 간행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울어져가는 韓醫學을 살리는 길이 외부적인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韓醫學을 부흥시켜 민족의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보자는 열망은 새로운 學術雜誌를 간행하여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잡지 중 특히 한의학을 학습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발간된 잡지가 있는데, 바로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등의 學術雜誌이다. 이 두 잡지에는 주로 公認醫學講習所에서 강의된 내용을 신고 있는데, 그 내용은 東醫學과 西醫學을 망라하고 있다.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의 내용은 강습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의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함으로써 한학을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하여 한의학말살의 시도에 나름대로 저항의 방법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 (3) 韓醫學교육의 강화론 대두

韓醫學을 되살리기 위하여 한의단체의 결성과 韓醫學術의 부흥을 위한 잡지 발행 등의 노력을 경주하던 한의계는 韓醫學 후진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 후진의 양성만이 韓醫學의 살리는 유일한 수단임을 자각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한의계의 교육기관은 정부의 전면적인 지지도 없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들이 많았는데, 이는 한일합방 이전에 세워졌던 동제학교, 한일합방 이후에 세워진 의학강습소 등이다.

126) 『東醫報』 제 1호

1) 同濟醫學校<sup>127)</sup>

서양의학이 제도화되고 서양의학을 교육기관들이 줄줄이 들어설 무렵 조선에서는 한의를 교육하는 기관은 전무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세워진 동제의학교는 1904년에 張容駿, 홍철보, 김병관 등이 민간 한의사인 이응세, 강필주, 조동호 등의 발기와 협조로 大韓醫學校 설립할 것을 고종에 주청하여 현재 唐珠洞 奉常寺 南門골에 있는 내담사 관사에 설립하도록 인허하여 생긴 학교이다. 개교 당시의 학생수는 40여명이었으며, 고시관에 洪哲普, 張容駿, 李鶴浩 등이 맡았다. 고시방법은 面講(『內經』 『難經』), 背講(『醫學入門』 『東垣十書』 『丹溪心法』)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며, 교사로는 이기영, 이교옥, 송태환, 조용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됨에 따라 개교한지 3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 후 1909년에 大韓醫士會가 임원회를 개최하여 漢城府의 한의사들을 소집하여 東西醫學講習所를 만들게 된다. 한 나라의 임금도 외세에 의해 강제로 퇴임당하는 아픔을 겪는 시점에서 교육기관 하나쯤이 문을 닫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同濟醫學校의 폐교는 韓醫學 후진 양성이 가로막히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 의학강습소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의 韓醫學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의들을 양성하기 위한 韓醫學교육의 노력은 계속 되었다. 1906년에 세워진 동제의학교, 1909년에 조직된 大韓醫士會 등은 이러한 노력을 잘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同濟醫學校는 개교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이름을 조선의사 연찬회로 바꾸고 東西醫學강좌를 열심히 진행한 대한의사회도 한일합방이 되고난 후에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그럴수록 韓醫學교육에의 열의는 더욱 높아져서 급기야는 개인이 세운 강습소형태의 교육기관이 등장하게 된다. 洪鍾哲, 이해성, 조병근 등이 발기하여 만들어진 공인의학강습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강습소는 1908년에 서울의 사동에 설립되어, 1912년에는 수문동으로, 1915년에는 와룡동, 1916년에는 익선동, 같은 해에 재동 등지로 옮겨가며 강의를 하였다. 본 강습소에서는 東醫學과 西醫學의 강의를 모두 진행하였고, 교보재비 및 소모비는 洪鍾哲이, 교과서 인쇄비는 조병근이 각각 사비를 분담하여 충당하였다. 이러한 강습소가 모태가 되어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등의 學術雜誌가 발간되면서 이 시기의 韓醫學교육이 활성화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항상 순탄하게 강습소의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27) 同濟醫學校에 관해서는 표천근의 「동제의학교의 의학적 의의」 참조.



경제적인 이유로 西醫學의 강의가 중단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1913년에는 洪鍾哲의 명의로 의학강습소의 공인을 받고, 1916년부터는 東醫學과 西醫學을 모두 강의하며 본격적인 교육을 하게 되었다.<sup>128)</sup>

비록 작은 규모의 강습소에 지나지 않지만, 본 강습소에서 수강한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한의들도 본 강습소에서 발행한 잡지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기에, 공인의학강습소의 교육효과는 자못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차례의 졸업식을 통하여 많은 수의 졸업생이 졸업을 하였다. 이는 비록 당시에 서양의학을 강의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졸업생보다 적은 숫자였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졸업생을 한의인력으로 배출시킨 그들의 노력은 높이 사야할 것이다.

## 2. 1920년대 : 동서의학 절충론의 대두기

한일합방 후 억압적이던 일제의 통치가 1919년에 일어난 삼일운동을 계기로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른바 문화정치기라 불리는 1920년대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에 한의계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특히, 1920년대는 지식인들의 지적욕구와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커졌던 시기로 한의계에서도 이런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1910년대 초기에 실시된 의생제도로 말미암아 韓醫學의 위상은 날로 축소가 되고 서양의학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를 자각하고 韓醫學을 중심으로 서양의학을 연구하여 韓醫學을 새롭게 발전시켜 보려는 노력과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나타난 변화가 동서의학연구회라는 한의사단체의 결성과 『동서의학연구회월보』라는 학술지의 간행을 통한 학술적 노력이다.

### (1) 東西醫學研究會의 결성과 韓醫學의 생존방안 모색

三一運動은 민족자결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독립을 부르짖은 민중이 솔선수범하여 이루어낸 혁명적 성격의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와 부수적으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켰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20년대를 문화정치기라 부르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반영됨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기의 사회상은 다양한 사상의 유입으로 인하여 각계 방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신경향이 나타나는데,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8) 『東西醫學報』 제 1호.

한의학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시적이거나<sup>129)</sup>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東西醫學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학 창출을 도모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東西醫學의 결합을 위한 노력은 곧 학회의 결성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醫生들의 단체인 全鮮醫會의 활동이 약해진 이후로 뜸하여졌던 학회활동이 東西醫學研究會라는 단체의 결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東西醫學研究會는 金性璣, 韓鳳熙, 金暎濟, 都殷珪, 吳三柱, 李乙雨 등에 의해 주도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東西醫學研究會月報』의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들에 대한 자료는 현재 별로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는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 게재된 글을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아래에 그 분석한 내용을 적는다.

金性璣는 1879년에 태어났으며 사망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호는 晴峯이며, 東西醫學研究會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창간호에 보이는 회원명부를 살펴볼 때 그는 아마도 종로구 낙원동에서 慈生醫院이라는 한의원을 개설하고 진료에 임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는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 다양한 글을 싣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가 韓醫學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韓鳳熙는 구한말에서 일제시대까지 활동한 醫生이다. 그의 생몰연대는 확실하지 않은데, 대략 1890년 무렵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활동상이나 의학사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東西醫學研究會月報』가 유일하다. 창간호에 그의 주소가 종로구 청진동으로 나와 있는데, 당시에 그는 이곳에서 의원을 열고 진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東西醫學研究會의 편집부장을 역임하였고, 『東西醫學研究會月報』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다.

金暎濟는 출생년도와 사망연도가 확실하지 않다. 그는 東西醫學研究會의 全北地方部長을 역임하였다. 그는 당시에 서울의 孝子洞에서 개업의로서 활동하면서 환자들을 보살폈다. 그의 의안이나 의술에 관한 저작 등은 남아 있지 않아 그의 활동상을 상세히 알 수는 없다. 그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글이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가 韓醫學의 진단 체계뿐만 아니라 서양의학의 진단법에도 나름의 지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都殷珪는 1890에 태어났으며 사망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호는 稚槐이며, 東西醫學研究會의 咸南地方部長을 역임하였다. 그는 四象醫學에 정통하였는데, 그의 지역적 연고가 이제마의 고향과 일치한 관계로 그러한 듯 하다. 그가 직접 이제마의 제자들로부터 師事를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四象醫學을 어릴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의학공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 「四象醫學의 解説」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재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이 연재하던 도중 갑자기 잡지의 폐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가 이 이후에 어떠한 활동을 하였

129) 여기에서 “일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략 10년 후에 새로운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는지는 상세히 알 수는 없다.

吳三柱는 출생년도와 사망연도가 확실하지 않다. 그는 東西醫學研究會의 平南地方部長을 역임하였다. 그는 당시에 서울의 壽松洞에서 개업의로서 활동하면서 환자들을 보살폈다. 그의 醫案이나 의술에 관한 저작 등은 남아 있지 않아 그의 활동상을 상세히 알 수는 없다.

李乙雨는 1871년에 태어났으며 사망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호는 以亭이고, 1914년에 개최된 한의사들의 총회격인 全鮮醫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東西醫學研究會의 부회장을 지냈으며, 나중에는 同會의 相談役을 역임하였다. 그는 당시에 서울의 苑洞에서 개업의로서 활동하면서 환자들을 보살폈다. 그의 의안이나 의술에 관한 저작 등은 남아 있지 않아 그의 활동상을 상세히 알 수는 없다.

## (2) 『東西醫學研究會月報』 간행과 한의계의 학술적 노력

『東西醫學研究會月報』는 1923년 12월 31일에 제 1호가 발간된 후 1925년 10월 18일에 革新 제 1호가 발간되기까지 총 7권이 발행되었다. 1921년에 醫生들의 학술연구 장려와 지식의 계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東西醫學研究會에서 발행한 이 잡지는 韓鳳熙를 발행인으로 발행되었으며, 金性璣, 李乙雨, 都殷珪 등의 동의학강의와 서양의사의 서의학강의를 함께 싣고 있다. 1924년 9월 30일에 제 6호를 낸 후, 1925년 10월 18일에 ‘革新 제 1호’로 바꾸어 재창간하는 의욕을 보였으나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東西醫學研究會月報』의 발간 목적은 창간호에 실린 金性璣, 韓鳳熙, 李乙雨, 雪初居士, 宋振玉 등 여러 한의사들의 축사에 잘 나타나 있다. 대체로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시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韓醫學을 부흥,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창간호에 나와 있는 金性璣의 「創刊辭」, 韓鳳熙의 「告辭」, 李乙雨의 「醫界에對한一言」, 雪初居士의 「本報創刊에對한야」, 宋振玉의 「醫界將來를祝함」 등의 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듯이 『東西醫學研究會月報』는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시켜 溫故知新하는 자세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침체된 韓醫學을 부흥, 발전시키려는 목적 하에 발간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전에 나온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이 전의 두 잡지가 동의학교육에 중심을 두고 서의학을 부수적으로 원용하여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東西醫學研究會月報』는 좀더 적극적으로 서의학을 수용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3) 동서의학의 회통(결합) 시도와 한계

앞에서 언급했듯이 1920년대에 발간된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는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결합이나 흡수하는 형식이 아닌 각각의 장점을 취하려고 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동서의학간의 명칭 비교, 洋診韓治와 漢診洋治, 서양의학적 방법론의 도입 등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행하여졌다. 이상의 동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을 하려는 시도는 1920년대 당시 한의계의 상황 및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이도 건강부회적인 모습을 띠지 않을 수 없어 한계가 곧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韓醫學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등장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사그라지고 말게 된다.

### 3. 1930년대-1945년 : 전통의학 회귀론의 대두기

일제의 제국주의 야욕이 날로 높아지던 1930년대에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탄압과 이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피해도 더욱더 심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의계는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도울 수 없었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고자 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 1920년대에 물밑 듯이 주류를 형성하였던 사회주의 사조와 더불어 한의계에서도 서양의학을 포괄하는 의학을 만들어 나가자 하였으나 그 한계를 깨닫고 전통의학으로의 회귀와 새로운 학술잡지를 통하여 민족의학의 꽃을 피워보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된다.

#### (1)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노력

일제의 식민정책이 날로 가혹해져갈 즈음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자주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1930년대는, 漢醫界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시기였다. 이 때까지 일제에 의해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위축되기만 하던 한의계는 새로운 부흥의 노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 서양의학을 익혀 韓醫學과의 융합을 통하여 韓醫學을 발전시켜 보려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간 가운데 1930년대의 새로운 분위기는 한의사들에게는 한줄기 새로운 빛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의사단체의 조직을 새로이 결성하고 관련 학술지를 간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서의학연구회의 임원진 교체와 학술지인 동양의약의 발행이다.

#### (2) 동서의학연구회의 정비와 『東洋醫藥』의 발행

1920년대에 결성된 東西醫學研究會는 그 명칭처럼 동서의학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韓醫學을 창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시대적인 상황과 학문적인 한계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따라 1930년대가 되자 흐트러진 조직의 새로운 결성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東西醫學研究會라는 명칭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조직의 결성하게 된다.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게 되자 임원진은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會長에 金明汝, 副會長에 安孝式, 李明善, 幹事に 金東熏, 金鍊煥, 金永勳, 趙憲泳, 李元模 등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評議長에 李乙雨와 評議員이 27名이 있었으며, 顧問을 韓秉璉, 李祥源 등이 맡았다.

이들 중 『東洋醫藥』을 발행한 東洋醫藥社의 사원으로 主幹을 지낸 趙憲泳과 編輯部長을 역임한 金永勳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趙憲泳은 1900년에 태어나 1988년에 사망한 韓醫學자이다. 그의 출생지는 경북 영양 혹은 강원 등으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데, 저작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6·25 때 납북되어 생사를 알 길이 없었으나 최근에 1988년 북한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의 호는 海山이다. 그는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1934년에 발간한 『通俗漢醫學原論』이다. 이 책은 韓醫學의 홍보책자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韓醫學의 입문서로 활용하였다. 그는 『東洋醫藥』의 編輯兼發行人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시의 많은 지방에서 열렸던 漢方醫學講習會에 金永勳 등과 함께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金永勳은 1882년에 태어나 1974년에 사망한 근대 韓醫學을 대표하는 韓醫學자이다. 그의 호는 定庵, 晴崗이다. 1904년에 同濟醫學校 교수로 선발되어 韓醫學을 강의하였으나, 고종의 퇴위로 동제의 학교가 문을 닫자, 典醫출신이며 당시 韓醫學의 원로였던 洪哲普, 張容駿, 崔奎憲 등과 八家一志會를 결성하여 韓醫學의 부흥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1915년에는 全國醫生大會를 계기로 발간된 韓醫學術雜誌인 『東醫報鑑』의 산파역할을 하였다. 그는 또한 東西醫學研究會의 幹事임무를 맡은 동시에 東洋醫藥社의 編輯部長을 지내며 『東洋醫藥』에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그는 趙憲泳 등과 함께 지방의 醫生講習所에서 열리는 강습회의 강사로도 활동하여 韓醫學의 후진을 양성하는 등 韓醫學부흥에 앞장섰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壽世玄書』가 있다.

『東洋醫藥』은 1935년 1월 1일에 제 1호가 발간된 후 같은 해 5월 1일에 제 3호가 발행되기까지 총 3권이 발간되었다. 이 잡지는 趙憲泳을 編輯兼發行人으로 하여, 金永勳, 張基茂, 李乙雨, 李乙浩 등이 저술한 韓醫學 관련 논설 및 이론 등을 실고 있다. 『東洋醫藥』은 東洋醫學의 現代化, 東洋醫學의 民衆化, 東洋醫學의 學術的發展 등의 3대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創刊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東洋醫藥』은 당시에 서양의학에 대한 무조건적 신봉을 비판하는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시점에서 朝鮮에서의 漢醫學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겨 漢醫學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

되었음 알 수 있다. 이는 東西醫學研究會라는 동일한 단체에서 이전에(1925년) 東醫學과 西醫學을 결합시켜 溫故知新하는 자세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침체된 漢醫學을 발전시키려는 목적 하에 발간된 『東西醫學研究會月報』와 비교한다면 그 목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 (3) 전통의학 회귀론의 대두

1930년대가 되자 민족주의 경향이 많이 대두하게 되었다. 한의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통 韓醫學을 부흥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잡지가 바로 『東洋醫藥』이다. 『東洋醫藥』에는 漢醫學復興에 관한 논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는 당시에 서양의학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의료계 전체에 팽배하게 되면서 조선의 전통의학인 漢醫學을 발전시키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第一號에 실린 金永勳과 張基茂의 글이 이를 반영해 주는 대표적인 글들이다. 金永勳은 「漢方醫學復興論에對하야」<sup>130)</sup>라는 글에서 “조선의 현실이 인구에 비해 턱없이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 고급스런 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에서의 진료는 좋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선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시급한 조선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漢方醫藥이 중요하다.”면서 한방의학의 부흥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張基茂는 「漢方醫學革新論-朝鮮新醫學建設의前提로-」<sup>131)</sup>라는 글에서 “서양의학자의 시각에서 韓醫學을 바라보아서 가능성과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漢方醫學의 史的考察, 漢方醫學의 朝鮮에서의 地位, 漢方醫學衰退의 遠因과 近因, 漢方醫學革新의 意義, 科學上으로 본 漢方醫學, 民族的으로 본 漢方醫學, 漢方醫學의 將來 등의 소제목 하에 韓醫學革新論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東西醫學研究會가 출간하여 漢方醫學의 철저한 革新을 이룩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담고 있다.

『東洋醫藥』을 통하여 당시의 한의계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의 한의사 단체인 東西醫學研究會는 결성 당시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第一號에 실린 「東西醫學研究會革新大會趣旨書」라는 글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漢醫學의 발전과 漢方醫藥業者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창립된 지 10여년이 넘었다. 잦은 추태를 연출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全然沈息상태에 빠진 것은 실로 慙愧를 금치 못할 일이다. 韓醫學의 발원지는 中國이나 朝鮮에 와서 더욱 발전되었다. 신진 학자들이 漢醫學振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기회에 한자리에 모여 안으로는 韓醫學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漢方醫藥業者의 지위의 향상 보장을 힘쓰자. 한걸음 더 나아가 漢醫學教育機關의 설치 및 漢醫存續의 방도를 강구하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韓醫學부흥의 분위기에 고조된

130) 『東洋醫藥』 第一號

131) 『東洋醫藥』 第一號

자신감의 표현이며 그러한 자신감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東洋醫藥』이 창간된 이후에 漢醫藥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咸鏡北道, 咸鏡南道, 全羅北道, 忠淸南道 등지에서 醫學講習會 및 醫生과 藥種商들을 위한 강습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東西醫學研究會의 임원인 田光玉, 金東熏, 趙憲泳, 金永勳 등이 직접 현지에 가서 강의를 하였다. 또한, 忠南醫藥組合이 창립되었고, 咸興과 平讓에 藥令市가 신설되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변화는 당시에 고조된 韓醫學부흥의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는 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韓醫學부흥의 분위기가 일본의 전쟁과 패배, 그리고 해방정국의 혼란상 속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IV. 韓醫學術雜誌에 나타난

### 日帝時代의 韓醫學術경향

일제시대에 나온 韓醫學術雜誌는 시대적인 韓醫學의 변화상도 잘 반영하여 주지만 이들 잡지의 대부분이 처음 발간할 때에 강의록을 연재하는 형식의 잡지로 발간 목적을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韓醫學을 공부하기 위한 교재로 이용하였기에 학술적인 경향성도 잘 대변하여 준다. 여기에는 다양한 학술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 옛부터 내려오는 韓醫學을 고수하여 전통 韓醫學을 이룩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것들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흡수하여 새로운 韓醫學을 이룩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에 잘 나타나는데, 이 두 잡지에서는 공인의학강습소에서 강의한 東醫學과 西醫學의 강의록을 교과과정<sup>132)</sup>에 따라 매 회마다 연재하여 醫生 시험에 대비하고 기존의 한의들을 재교육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잡지와 다른 시기에 나온 잡지를 함께 고찰하여 일제시대의 韓醫學術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溫故知新的 韓醫學, 韓醫學과 서양의학의 匯通 등의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당시의 한의계의 학술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 溫故知新的 韓醫學

일제시대의 韓醫學은 여전히 전통적인 韓醫學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는 韓醫學의 전통이 말살되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을 잘 앞으로 인하여 새로운 韓醫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132) <公認醫學講習所 教科課程 及 每週教授 時數表>

당시한의들의 자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1) 『內經』을 통한 經典 중심의 韓醫學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東醫學강의 중에는 『內經』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삼아 강의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病理學, 診斷學, 脈經, 外科學 등이다. 이들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病理學

상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病理學’이라는 제목 하에 『內經』의 여러 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sup>133)</sup>

먼저, 『黃帝內經·素問』의 첫 편인 『素問·上古天眞論篇 第一』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람의 夭壽와 질병의 발생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병을 앓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자초한 것(섭생의 도를 잃어버림)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원인으로 外因-육음외사(風, 寒, 暑, 濕, 燥, 火), 內因-칠정내상(喜, 思, 悲, 憂, 驚, 恐,

學年	第1學年		第2學年		第3學年	
教科目	時數	課程	時數	課程	時數	課程
修身	1	修身, 要旨	1	修身, 要旨	1	修身, 要旨
國語	3	會話, 作文	3	會話, 作文	2	會話, 作文
算術	2	珠算, 算術	2	珠算, 算術		
理科	2	物理, 化學				
臟腑, 經絡學	4	東醫學				
脈經	2	東醫學	2	東醫學		
解剖, 生理學	4	新醫學				
病理學			3	新醫學		
傷寒學	3	東醫學	2	東醫學	2	東醫學
雜病學	3	東醫學	2	東醫學	2	東醫學
診斷學			2	新醫學		
外科學			2	新醫學, 東醫學	3	新醫學, 東醫學
婦人, 產科學					4	新醫學, 東醫學
小兒科學					2	東醫學
藥物學			2	新醫學, 東醫學	2	新醫學, 東醫學
眼耳鼻咽喉科學					2	新醫學
內科學			3	新醫學	2	新醫學
四象學					2	東醫學
計	24		24		24	

(此에 의하야 月報를 편집하되 修身, 國語, 算術은 편입치 아니함)

(『東西醫學報』 제 1호.)

133) 『東西醫學報』 제 1호.



怒), 각각의 내인과 외인의 결합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이 각 장부를 손상시켜 병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靈樞·百病始生 六十六』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본 편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서 질병발생의 원인으로 外因-육음외사(風, 寒, 暑, 濕, 燥, 火), 內因-칠정내상(喜, 思, 悲, 憂, 驚, 恐, 怒), 각각의 내인과 외인의 결합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이 각 장부를 손상시켜 병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질병 발생의 기전 및 합당한 치료원칙까지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靈樞·憂恚無言 第六十九』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본 내용을 통하여 失音症의 병인과 자침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각 발음기관의 기능 및 병리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素問·生氣通天論篇 第三』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 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外感邪氣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병리변화, 생명활동에 있어서의 양기의 중요작용과 양기와 유관한 각종병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病理學’이라는 제목 하에 네 편의 『內經』 원문을 인용하여 질병의 원인 및 발병기전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韓醫學의 기초적인 이론으로 韓醫學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기에 교과과정의 첫머리에 놓고 있다. 또한, 상기의 편을 별다른 설명 없이 원문만을 수록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강습소 학생들이 이들을 다 암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여 이를 통하여 韓醫學의 기초를 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診斷學

상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기본적인 진단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內經』의 여러 편을 인용하고 있다.<sup>134)</sup>

먼저 『素問·五藏生成篇 第十』에서 일부의 내용을 인용하고,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에서 일부의 내용을 인용하여 오장과 오색의 상응관계를 설명하고, 망색으로 내장의 병변을 살피는 色澤 診斷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平脈早晏法’라는 소제목 하에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에서 일부의 내용을 인용하여 아침에 진단을 해야 하는 이유와 望色과 聞聲으로 내장의 병변을 살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법도 또한 『內經』의 여러 편들을 암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익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內經』에 나와 있는 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당시 서양의학의 기계를 통한 진단법이 많이 수용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단법 강의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韓醫學의 진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의 방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134) 『東西醫學報』 제 1호.

### 3) 脈經

『脈經』에서는 여러 편의 소제목으로 ‘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한 『內經』의 여러 편을 근간으로 하고 부차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sup>135)</sup>

각각의 소제목과 인용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部九候’라는 제목 하에 『素問·三部九候論篇第二十』의 내용을, ‘七診’은 『素問·三部九候論篇第二十』의 내용을, ‘診有十度, 診有陰陽’은 『素問·方盛衰論篇 第八十』의 내용을, ‘脈合四時陰陽矩規’는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의 내용을, ‘四時藏脈病有太過不及’은 『素問·玉機眞藏論篇 第十九』의 내용을, ‘脈分四時無胃曰死’은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의 내용을, ‘逆從四時無胃亦死’은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 『素問·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素問·玉機眞藏論篇 第十九』 등의 내용을, ‘五臟平, 病, 死脈胃氣爲本’은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의 내용을, ‘三陽脈體’는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의 내용을, ‘六經獨至病脈分治’는 『素問·經脈別論篇 第二十一』의 내용을, ‘寸口尺脈診諸病’은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의 내용을, ‘部位’는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의 내용을, ‘呼吸至數’는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의 내용을, ‘五臟之氣脈有常數’는 『靈樞·根結 第五』의 내용을, ‘搏堅奕散爲病不同’은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의 내용을 각각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소제목에 따른 『內經』을 인용하여 맥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통하여 韓醫學에서 진단의 큰 대강이 되는 ‘맥’에 대한 정상, 비정상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韓醫學에서 진단에 있어서 ‘맥’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 시기 한의들은 매우 잘 자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숙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양의학의 진단기기가 많이 알려지고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맥진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당시 한의들의 韓醫學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4) 外科學

여기서는 外科學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靈樞·癰疽 第八十一』의 전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먼저 癰疽에 대한 개괄적이 설명을 한 후에 癰疽의 발병 부위에 근거하여 각종 癰疽의 명칭을 열거한 후 각각의 증치와 예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癰疽의 병리와 증상상의 주요 감별점도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病理學, 診斷學, 脈經, 外科學 등 네 강좌에서 『內經』의 암송, 강론 등의 방법으

135) 『東西醫學報』 제 2호, 제 3호, 제 7호, 제 8호. 본 ‘맥경’의 내용은 『朝鮮醫學界』 제 2호부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언재된다.

로 韓醫學강의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韓醫學을 경전 중심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傷寒論』, 『金匱要略』을 통한 상한과 잡병에 대한 연구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에는 상한과 잡병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이들 강의는 唐宗海의 저작을 저본으로 삼고 있는데, '傷寒學'에서는 『傷寒論淺注補正』의 내용을, '雜病學'에서는 『金匱要略淺注補正』의 일부 내용을 차례로 신고 있다.<sup>136)</sup>

傷寒學의 강의는 첫머리에 '熱病者 皆傷寒之類也'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처럼 傷寒의 연구 또한 『內經』의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唐宗海의 저작 중 주석에 해당되는 중요부분을 뽑아 강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매 잡지마다 辨太陽病脈證, 辨陽明病脈證 등과 같은 제목 하에 서술을 하고 있다. 唐宗海의 원작에는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霍亂病, 陰陽易差後勞復病 등 총 7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에서 연재한 내용은 陽明病의 일부까지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韓醫學의 큰 줄기 중의 하나인 『傷寒論』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잡병학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다.

臟腑經絡先後病脈證, 瘧濕喝病脈說, 瘧病脈證, 中風歷節病脈證, 血痺虛勞病脈證,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 奔豚氣病脈證治, 胸痺心痛短氣病脈證治,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 五臟風寒積聚病脈證, 痰飲咳嗽病脈證治,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 水氣病脈證 등의 제목 하에 『金匱要略』의 원문에 주를 단 형식의 서술로 잡병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하고 있다. 唐宗海의 원작에는 총 9권의 책에 22가지의 소제목으로 서술이 되었 있는데,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에 연재된 위의 내용 외에도 黃痺, 驚悸吐衄胸滿瘀血, 嘔吐噦下利, 瘡癰腸浸淫, 跌蹶手指臂腫轉筋狐疝虻蟲, 婦人妊娠, 婦人產後, 婦人雜病 등의 내용이 더 있다. 이러한 잡병학의 강의를 통하여 韓醫學에서 다룰 수 있는 제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3) 『東醫寶鑑』의 활용

조선 후기로 오면서 『東醫寶鑑』을 요약한 형식의 방서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東醫寶鑑』을 근간으로 연구하면서 새로 나온 서적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日

136) 『東西醫學報』 제 2호 ~ 『朝鮮醫學界』 제 11호.

帝時代까지도 계속 되었는데, 學術雜誌를 통하여 살펴본 이시기의 한의들은 『東醫寶鑑』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행하였으며, 이를 韓醫學 교육에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東西醫學報』 창간호에 있는 ‘診斷學’과 ‘藥物總論’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진단학’에는 여러 가지 소제목 하에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內經』을 인용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持脈輕重法’은 『東醫寶鑑·雜病篇』의 「診脈·診有輕重」에서 내용을 인용하여 맥에 경증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은 『東醫寶鑑·外形篇』의 「脈·人迎氣口脈」에서 구절을 인용하여 오장육부를 주하는 맥의 부위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藥物總論’에서도 『東醫寶鑑』의 여러 부분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東醫寶鑑·湯液編』의 「湯液序例·用根稍法」에서 인용한 내용과 같은 편의 「氣味升降」에서 인용한 내용을 통하여 약재의 각 부분의 쓰임과 기미승강의 이론을 설명함으로써 약물에 이해를 돕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日帝時代 한의들은 『東醫寶鑑』에 관한 연구를 교육에 인용하여 쓸 정도로 깊이 있게 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한국 韓醫學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경향의 반영인 것이다.

#### (4) 四象醫學에 대한 연구

일제시대 한의계에서는 사상의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였다. 李濟馬의 사상의학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를 알리고 우리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을 보이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이들이 도은규, 이을호, 조현영 등이다.

도은규는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서 四象醫學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연재하였다. 그가 「四象醫學의解說」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이 연재물은 창간호부터 잡지가 폐간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글은 四象醫學의 발생배경에 대하여 서술하고, 李濟馬의 학문적 깊이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都殷珪는 여기에서 “四象醫學은 순전히 性理道德에 바탕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東醫壽世保元』의 원문을 나열하고 저자의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띠고 있다. 제 1장 ‘性命論’부터 제 2장 ‘四端論’까지 연재하던 도중 갑자기 잡지의 폐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東洋醫藥』에도 四象醫學에 대한 글이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 이는 당시의 四象醫學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李乙浩가 쓴 「四象醫學의研究」<sup>137)</sup>라는 글이 연재되었다. 그는 이 글에서 李濟馬의 四象醫學論을 설명하였는데, 李濟馬와 四象醫學, 四象醫學의 理想, 四象人의 四大類型 등

137) 『東洋醫藥』 第二號 ~ 第三號

의 소제목 하에 사상의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李濟馬의 人體生理論이라는 제목으로 肺脾肝腎의 部位, 腑官의 職能과 互相關係, 肺之黨, 脾之黨, 肝之黨, 腎之黨과 其他 등 臟腑論을 서술하고 있다. 『東洋醫藥』의 편집부는 독자들을 위하여 『東醫壽世保元』 원문을 전재하고 있다. 「李濟馬四象醫論抄錄」<sup>138)</sup>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이 글은 趙憲泳이 四象醫學과 李濟馬에 대한 解題를 붙이고 『東醫壽世保元』 원문을 순차적으로 싣고 있다.

일제시대에 나온 대다수의 잡지에 四象醫學에 관한 내용은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四象醫學이 일제시대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 준다.

## 2. 韓醫學과 서양의학의 匯通

### (1) 唐宗海의 회통사상

밀물처럼 밀려오는 서양의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당시의 한의들은 중국의 중의사의 고민을 학습하여 활용하고자 한 노력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東醫學강의 중 東醫學과 西醫學을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臟腑論’, ‘血證論’, ‘本草問答’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강의는 청나라 唐宗海의 ‘中西匯通’의 사상과 그 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唐宗海가 지은 『中西匯通醫書五種』 중의 일부내용을 그대로 옮겨 싣고 있는데, ‘장부론’은 『中西匯通醫經精義』의 내용을, ‘혈증론’은 『血證論』의 내용을, ‘본초문답’은 『本草問答』의 내용을 각각 일부 혹은 전체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臟腑論

‘臟腑論’에서는 『中西匯通醫經精義』의 내용을 순서대로 전재하고 있다.

그 내용은 25가지의 소제목 하에 장부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설명 방식은 서양 자연과학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內經』 등의 문장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천지 음양을 서양의 조화주의와 연계시키고, 오행과 서양의 천문학을 연계시키는 등 자연현상을 韓醫學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부의 모양이나 위치 등을 설명함에 있어 서양해부학적 지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특히 『醫林改錯』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醫林改錯』의 실증적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8) 『東洋醫藥』 第一號 ~ 第二號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에 연재된 ‘장부론’에서 이를 인용한 것은 唐宗海의 ‘中西匯通’의 정신이, 일제하에 퇴색해가는 東醫學의 살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데서 기인한 듯하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겪었던 근대중국의 혼란기에 중의학 또한 혼란과 왜곡을 겪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唐宗海의 노력이 ‘中西匯通’의 시도로 나타난 것처럼,<sup>139)</sup> 이러한 唐宗海의 노력과 유사하게 일제하 韓醫學者들도 西醫學의 이론과 東醫學의 이론을 아울러 배워서 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東醫學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의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저작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이 단순히 서적의 내용을 옮겨 적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 내용에 대하여 독자와 잡지의 편집진 사이의 토론이 심도 있게 행하여진 것<sup>140)</sup>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다.

## 2) 血證論

‘혈증론’에서는 唐宗海의 『血證論』의 내용을 순서대로 옮겨 적고 있다.<sup>141)</sup> ‘陰陽水火氣血論’, ‘男女異同論’, ‘臟腑病機論’, ‘脈證死生論’, ‘用藥宜忌論’ 등의 기본 이론부터 吐血, 嘔血, 咯血, 唾血, 咳血, 鼻衄, 腦衄, 目衄, 耳衄 등의 각종 출혈질환에 대하여 唐宗海의 『血證論』의 내용을 전제하여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3) 本草問答

‘본초문답’에서는 唐宗海의 『本草問答』의 내용을 순서대로 옮겨 적고 있다.<sup>142)</sup> 여기서는 본초학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약의 형색기미를 구별, 약의 성능포제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서의약의 같지 않은 이론관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중약약성의 인체의료에 대한 상호관계 등을 서술하여 독자들의 본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상의 세 과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한의계의 인사들은 韓醫學과 西醫學을 회통시켜 韓醫學의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서양의학의 장점을 취함

139) 양성완. 『中西匯通醫經精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40) 『東西醫學報』 제 5호. 창원에 사는 金鎭煥이라는 의생이 보낸 질의에 대하여 『東西醫學報』의 편집부가 답을 하였다. 방광, 삼초, 명문 등을 서양의학적 이론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다.

141) 『東西醫學報』 제 7호 ~ 『朝鮮醫學界』 제 11호.

142) 『朝鮮醫學界』 제 10호 ~ 『朝鮮醫學界』 제 11호.

韓醫學術雜誌에서는 西醫學강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 졌다. ‘解剖生理學’, ‘診斷學’, ‘藥物學’, ‘傳染病學’, ‘外科學’ 등의 강의 내용은 당시의 서양의학을 강의하였던 학교의 강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 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解剖生理學

‘해부생리학’이라는 제목 하에 해부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좌이다. 강의를 하는 순서는 골, 근육, 내장, 순환계, 신경계, 조직학의 차례이다. 우선 緒論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에 각론을 진행하고 있다. 骨學에서는 頭骨, 顔面骨, 軀幹骨, 脊椎骨, 肋骨及胸骨, 骨盤骨, 四肢骨, 軟骨及骨結合 등을 설명하고, 筋肉學에서는 筋肉의 分類, 軀幹筋, 四肢筋, 皮膚 등을 서술하였으며, 內臟學에서는 消化器, 口腔, 咽頭及食道, 胃, 腸, 消化管의 構造, 肝臟, 脾臟, 消化作用, 呼吸器, 鼻腔, 喉頭, 氣管, 肺臟, 胸膜, 呼吸作用, 泌尿器, 腎臟及輸尿管, 膀胱, 尿道, 生殖器 등을 설명하고, 循環器에서는 血管系, 血管, 動脈, 毛細管, 靜脈管, 血液, 血液循環, 淋巴管系, 淋巴管, 淋巴腺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神經系에서는 動物性神經系, 中樞部, 末梢神經, 植物性神經系 등에 대하여 서술을 하고 있으며, 組織略論에서는 細胞, 組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 2) 診斷學

먼저 緒論에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에 訊問에서는 現病前의 既往症, 現病後既往症을 조사하고, 診查에서는 一般診查法로 體格及體質, 營養狀態, 顔面, 皮膚及皮下蜂窩織, 姿勢位置及行步狀態, 體溫, 脈膊 등을 검사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 3) 藥物學

먼저 緒論에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總論에서는 藥物的作用(生理的作用), 藥物應用(醫治作用), 藥物用法 藥物的 用量 등을 서술하고, 藥效概要, 藥物的 施用部及用法, 處方學등의 소제목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4) 傳染病學

먼저 緒論에서는 개괄적인 언급을 하고 細菌의 一般性質又生活要略, 細菌과 病原作用, 傳染病的 感染과 素因 등의 소제목으로 원인론을 서술한 후에 傳染病的 預防, 傳染病病原의 概要, 傳染病的 意義, 傳染病的 種類, 傳染病의 原因 등의 소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細菌의 性能大要에 대하여 細菌의 形及大, 細菌의 發育, 細菌의 繁殖及其速度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傳染病에 對한 不感受性及感受性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不感受性, 感受性(素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전염병에 관하여서

는 『東西醫學報』에 연재되었던 내용이 『朝鮮醫學界』에 새로이 보강이 되어 다시 연재되었다. 傳染病의 發生, 病源體의 所在, 傳染病의 分類, 傳染病豫防法, 傳染病의 消毒法, 傳染病患者의 取扱法, 傳染病患者의 診察法, 黴菌에 就 痘 等의 소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傳染病의 豫防에 대해서도 傳染病治愈와 體內病原과의 關係, 免疫의 應用, 種痘, 治療血清, 豫防接種, 傳染病豫防의 概要, 傳染病輸入의 防止, 公衆衛生設備, 清潔法의 勵行, 個人衛生思想의 涵養, 傳染病發生에 對 準 備 等의 소제목으로 반복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 5) 外科學

외과학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總論에서는 緒論, 創傷論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創傷의 處置와 治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각론에서는 처음으로 頭部의 外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頭蓋軟部 및 頭蓋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外傷 및 疾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頭蓋軟部の 外傷及疾病이라는 제목 하에 頭蓋軟部の 創傷, 頭蓋皮下의 外傷, 頭蓋軟部の 疾病, 頭蓋軟部の 腫瘍, 頭蓋軟部の 腫瘍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頭蓋骨의 挫傷, 頭蓋骨의 創傷, 頭蓋頂의 骨折, 頭蓋底의 骨折, 頭蓋骨縫의 離開, 頭蓋骨의 腫瘍 등 두개골에서 생기는 각종 외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西醫學강의는 『朝鮮醫學界』로 넘어오면서 양이나 질 모두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양의학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입장에서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韓醫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sup>143)</sup> 이러한 시도는 『東醫報鑑』에서 일본인 서의사들이 쓴 전염병과 외과학에 대한 글을 실고 있는 것<sup>144)</sup>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서양의학에 대한 관심은 단지 강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도가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는데, 해부학의 기초적인 실습이 그것이다. 1918년에 고무인형으로 해부학 실습을 하였고, 같은 해에 의약전습회에서는 서의를 초빙하여 토끼 해부실습을 실시하여<sup>145)</sup> 강습소 교수들이 직접의 목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 (3) 서양의학의 강좌가 이루어진 이유

이와 같이 서양의학 강좌가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의 의생선발 시험문제<sup>146)</sup>

143) 『朝鮮醫學界』 제 1호의 첫머리에서 조병근은 논설을 통하여 서양의학과 東醫學의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방법으로 의학을 이룩하는 것이 지금 의학계의 대세라고 말하고 있다.

144) 『東醫報鑑』 제 1호, 제 2호.

145) 『朝鮮醫學界』 제 4호.



가 韓醫學 관련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서양의학과 자연과학이론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일제가 韓醫學을 말살하려는 기도의 하나로 실시한 의생선발시험은 韓醫學을 서양의학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나가려는 점진적인 시도였다. 이러한 기도에 이용된 결과물이 의생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강좌와 같은 궁여지책을 강구하게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日帝時代 초기의 韓醫學의 경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東西醫學의 匯通’이다. 이는 이러한 ‘회통’의 사상이 당시의 韓醫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 경향은 크게 溫故知新的 韓醫學, 韓醫學과 서양의학의 匯通 등의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한의학계의 학술경향은 동시대를 살았던 한의들의 한의학수호의 노력과 이에 따른 고충을 잘 반영하여 주는 것이다. 전통 한의학을 고수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물밀듯이 파고 들어와 일상에 스며들어버린 서양의학에 대한 고민은 당시의 한의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의학을 주체적으로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의학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노력은 당시 한의들의 학문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해방이 되고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혼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의학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 V. 結 論

본 논문에서 저자는 日帝時代에 간행된 韓醫學術雜誌 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 시기 구분에 따른 경향성 분석을 첨가하여 학술적 흐름을 보다 세분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론을 얻었다.

1. 日帝時代에 간행된 韓醫學術雜誌는 『漢方醫學界』로부터 『東醫報鑑』,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를 거쳐 『東西醫學研究會月報』, 『東洋醫藥』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다.

146) 1917년 5월 19일 경기도 경무부에서 행한 의생시험의 문제 (『東西醫學報』 제 8호)

1. 猩紅熱에 就호야 知호는 바를 記호라
2. 亞細亞虎列刺에 就호야 知호는 바를 記호라
3. 麻疹의 療法을 記호라
4. 副辜丸炎(囊腫)의 症狀과 療法을 記호라
5. 黴瘡, 黴毒의 療法을 記호라

이 기간동안 발간된 잡지의 총수는 모두 33권이다. 이들 잡지는 폐간과 재창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규칙하게 발간되었지만 일제시대의 한의사 단체인 全鮮醫會, 東西醫學硏究會 등의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기에 일제시대 한의계를 대변하는 학술지라 할 수 있다.

2. 日帝時代に 간행된 韓醫學術雜誌의 발간 목적은 첫째는 韓醫學의 폐절을 막고 韓醫學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韓醫學術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韓醫學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목적은 『漢方醫藥界』, 『東醫報鑑』, 『東洋醫藥』 등의 잡지에, 韓醫學術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목적은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硏究會月報』 등의 잡지에 잘 나타나 있다.

3. 日帝時代に 간행된 韓醫學術雜誌에는 다양한 내용의 글들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韓醫學, 西洋醫學, 自然科學 등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으며, 개인의 醫案에서부터 논설, 강연 등의 글까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들 내용은 모두 강좌 형식을 띠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형식은 韓醫學術雜誌를 통하여 醫生 및 당시 한의계 종사들을 재교육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4. 日帝時代に 간행된 韓醫學術雜誌를 통하여 日帝時代 韓醫學의 변화상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10년대는 ‘韓醫學의 부흥론의 대두기’, 1920년대는 ‘동서의학 절충론의 대두기’, 1930년대-1945년의 시기는 ‘전통의학 회귀론의 대두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상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韓醫界 내부에서도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韓醫學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5. 日帝時代に 간행된 韓醫學術雜誌에 나타난 日帝時代의 韓醫學術경향은 『內經』, 『傷寒論』, 『東醫寶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韓醫學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당시 韓醫界에서 이들 의서를 강독하고 암송하는 溫故知新의 자세로 韓醫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韓醫學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6. 日帝時代に 간행된 韓醫學術雜誌에 나타난 日帝時代의 韓醫學術경향은 東醫學과 西醫學을 융합하고자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청나라 唐宗海의 ‘中西匯通’의 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서양의학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 그것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자는 정신이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사선택의 과정은 물밀듯이 파고 들어와 일상에 스며들어버

린 서양의학에 대한 당시의 韓醫들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다.

7. 日帝時代 韓醫界가 韓醫學을 중심으로 서양의학을 주체적으로 취사선택하여 韓醫學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노력은 解放이 되고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혼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韓醫學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 <參考文獻>

1. 기창덕. 『韓國近代醫學教育史』,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서울, 1995.
2. 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서울, 1998.
3. 김적. 「韓國最近世 東洋醫學의 學術的 특징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4. 唐宗海. 『中西匯通醫書五種』, 동남출판사(영인), 서울, 1984.
5. 맹웅재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의성당, 서울, 1991.
6.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6.
7. 신중완. 「日帝侵略에 依한 韓方醫療制度廢絶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8. 양성완. 「『中西匯通醫經精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9. 이종형. 『晴崗醫鑑』, 정보사, 서울, 1984.
10. 이종형. 「韓國東醫學史」, 한국현대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77.
11. 정지훈. 「日帝時代初期 韓醫學術雜誌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2. 조현영. 『東洋醫藥』 제1호~제3호, 東洋醫藥社, 서울, 1935.
13. 靑柳綱太郎. 『朝鮮醫學界』 제1호~ 제11호, 朝鮮醫學界社, 서울, 1918.
14. 최동섭. 『東醫報鑑』 제1호~제2호, 全鮮醫會, 서울, 1916.
15. 한봉희.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1호~제6호·革新 제1호, 東西醫學研究會月報社, 서울, 1923.
16. 홍원식. 『黃帝內經素問』,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3.
17.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朝鮮醫生會, 서울, 1914.
18. 홍종철. 『東西醫學報』 제1호~제3호·제5호~제8호, 公認醫學講習所, 서울, 1916.